

1993
6
성도의 벗

발행처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표지 설명 :

덴마크에서 개종한 많은 회원 중 한 명인 아네테 마티센 앤센은 선교사 토론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모국에서 2년 동안 선교 사업을 하기로 결심했다. "덴마크의 바다와 농토와 사랑", 36쪽 참조
(사진 촬영 : 질즈 에이치 플로렌스 2세)

어린이란 표지 설명 :
사진 촬영 멜러니 섬웨이

일 반

대관장단 메시지 : 우리는 정직함을 믿는다

고든 비 힐클리 부대관장2

또 하나의 성찬 모임 패트 알레드 버넬14

회복을 찾아서 안젤로 스키폴라16

중앙 아메리카에서 발전하는 교회21

이노스와 같은 기도 크리스티 앤 질즈24

조셉 에프 스미스 : 가족을 통해 얻은 축복

아더 알 배싯26

덴마크의 바다와 농토와 사람들 질즈 에이치 플로렌스 2세36

감사의 노래 리사 레이 터너46

청 소 년 란

동보 통보에서의 하루 에시나스 무투만지8

구조 활동 래리 힐러10

독자를 위한 참고 사항33

정 기 특 별 기 사

애독자 편지1

방문 교육 메시지 : 장애자들을 돌봄25

교회 및 지역 소식65

어 린 이 란

후안 카를로스와의 대화 셔츠 잔 엠 스미스50

함께 나누는 시간 : 성전은 행복한 곳임 주디 에드워즈54

트루먼 오 엔젤 : 왕국의 건축가 사논 더블류 아슬러56

손수건 인형 주디 포덤60

데이비드 오 맥케이 켈린 리스 아담스62

여리고로 가는 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64

성도의 벗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간-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사모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및 핀란드어.
격월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 타히티어.
계간-아이슬란드어.

대관장단: 에즈라 태프트 벤슨,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심사사도 정원희: 하워드 더블류 헌더, 보이드 케이 퍼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포우스트, 빌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셀 비 워스리, 리처드 지 스쿠트
고문: 렉스 디 피너가, 찰스 디디에이, 로버트 이 윌즈

통 권: 제327호, 제30권, 제6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1993년 6월 1일(월간지)
발행인: 한 인 상
편집인: 한 인 상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은행 지로 번호 3001543

인쇄인: 삼립 인쇄 주식회사 김 현 수
© 1993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영어 승인-10/91, 번역 승인-10/91
June 1993 International Magazine의 번역본
Korean. 93986 320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권당 500원이며, 성도의 벗 해외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등) 12,000원, 2지역(필리핀, 중국 등) 16,200원, 3지역(중동 등) 23,200원, 4지역(중남미 등) 26,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 센터(☎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ONGDO-UI POT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ies.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러시아의 리아호나

리아호나(스페인어 판)에 실린 아주 흥미있고 유익한 기사에 대해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가 지금은 러시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잡지에 대한 고마움은 더욱더 큼니다. 저는 페루의 리마 출신으로, 이곳에서 3년째 농경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1985년에 이 교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마친 후, 복음 선교사가 되어 러시아로 다시 돌아와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대부분 주요 도시인 모스크바와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키예프 시에도 일부 회원들이 있습니다.

저는 전세계에 계시는 모든 말일성도 청소년 여러분에게 구세주를 믿는 신앙과 희망에 대해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해수알도 콘도리 마마니
크라스노다
러시아

귀중한 선교 사업의 도구

여러분께서 1991년 4월호 "애독자 편지"에 제 편지 "산 교훈"을 실어 주신 결과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제 편지가 실리자 저는 훌륭한 리아호나(포르투갈어 판) 잡지에 대한 간증과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편지를 친구들에게 보여 주었으며, 그 중 한 명이 리아호나와 그 안에 실린 내용에 관해 좀더 알고 싶어했습니다. 제 친구는 장을 넘길 때마다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잡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했기 때문에, 1년치를 구독하라는 저

의 제의를 즉시 받아들였습니다.

그 친구의 반응을 통해서 저는 그 잡지가 단순한 월간지의 차원을 넘어서 매우 귀중한 선교 사업의 도구가 된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세계 말일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리아호나에는 항상 의의 길을 가리키고 계시는 우리가 사랑하는 총관리 역원들의 영감 받은 메시지가 실려 있습니다. 리아호나에 실린 영감에 찬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맺어진 형제 자매들의 용기와 실행과 간증과 신앙에 관한 아름다운 모범을 보고 감명을 받습니다. 그분들의 경험은 우리가 선한 생활을 하도록 영향을 미칩니다. 리아호나는 참으로 귀중한 보물입니다.

비회원 친구들에게 교회 잡지를 선물한다면, 그들의 가정에 회복된 복음을 소개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쉽고도 즐거운 방법으로 선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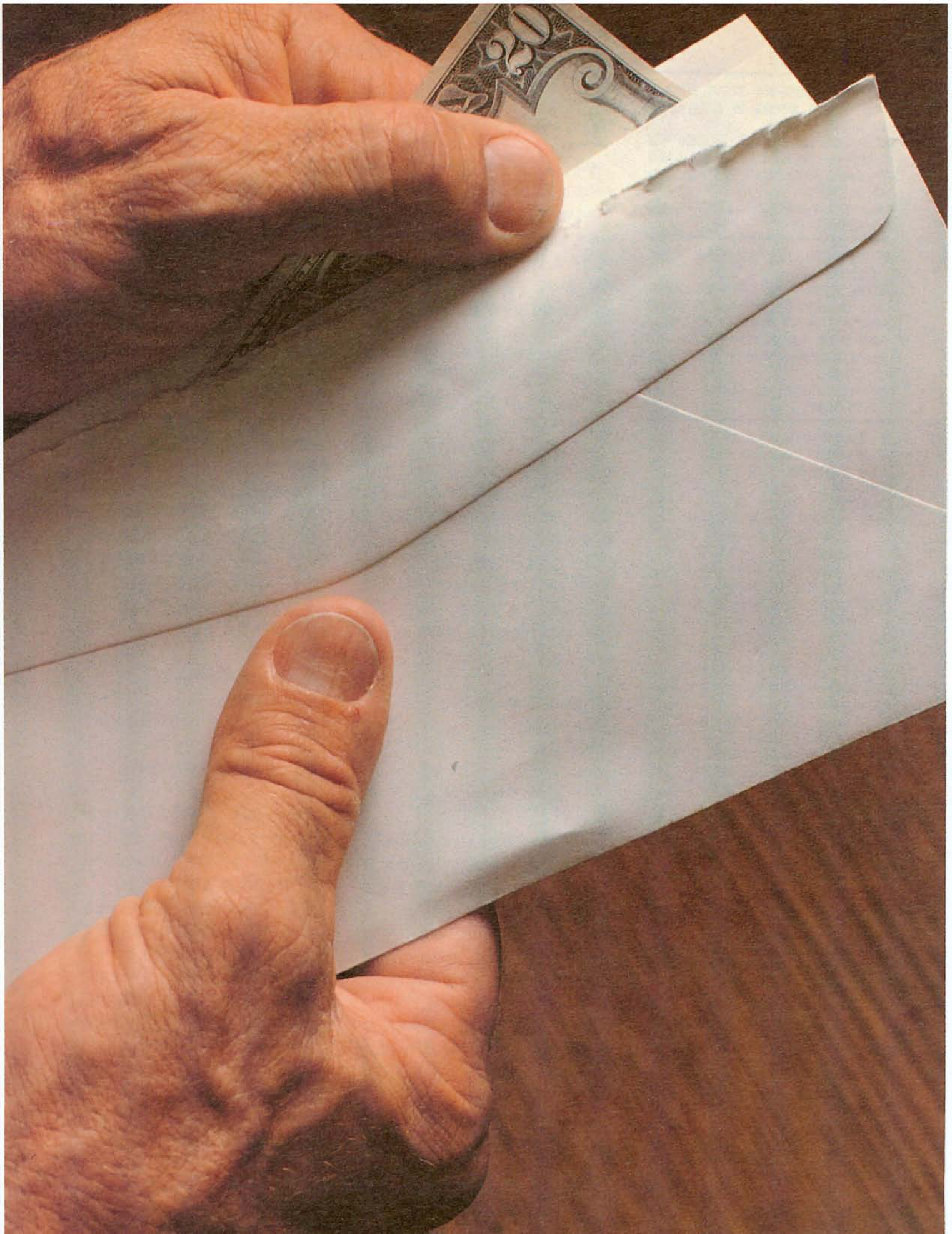
엘슨 카를로스 페레이라
폰타 그로사 제2와드
브라질 폰타 그로사 파리나 스테이크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저는 쉬엔타오 쉐 쉐(중국어 판)을 읽을 때마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종종 영을 느낄 때면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 잡지는 제가 군에서 복무하고 있을 때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특히 1992년 8월호에 실린 힐라맨이 2천 명의 젊은 암몬 용사들을 이끌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그림을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의와 용기를 보여 주는 참으로 훌륭한 본보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창킨카이
산청 와드
대만 타이페이 서 스테이크



우리는 정직함을 믿는다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저에게 익명으로 보내 온 많은 편지 가운데, 특별히 흥미를 끄는 편지가 한 통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20달러짜리 지폐 한 장과 편지를 보내 온 사람이 오래 전에 우리집엘 다녀갔다는 내용이 담긴 찢막한 글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글에 따르면 현관의 초인종을 울렸지만 대답이 없자, 그분은 문을 당겨 보고 잠겨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안으로 들어와 이곳 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침실 화장대 위에 20달러짜리 지폐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저의 집을 나왔습니다. 그후 오랜 세월 동안 양심의 가책을 받아 온 그분은 그 돈을 돌려 주기에 이르른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저는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이 약 25년
동안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혀 온 양심의
가책을 통해 매우
비싼 이자를 치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제 돈을 것처럼 오랫동안 사용한 것에 대한 이자는 지불하지 않았지만, 참회하는 마음이 담긴 그분의 편지를 읽는 동안 저는 그분이 약 25년 동안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혀 온 양심의 가책을 통해 매우 비싼 이자를 치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그 돈을 되돌려 줄 때까지 잠시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지역 신문에도 이와 비슷한 기사가 실렸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유타주 정부로 서명 없이 보내 온 편지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200달러와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동봉해 드리는 돈은 제가 오랫동안 주 정부를 위해 일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봉투나 종이, 우표 같은 물품 값입니다.”

여기저기에서 하찮은 것이라도 남모르게 사취해 갔던 사람들이 그같이 부정직하게 취해 간 것들을 되돌려 준다면 행정부와 회사 및 상점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될 막대한 양의 돈을 상상해 보십시오.

슈퍼마켓에서 파는 식표품이나 상점의 의복과 넥타이 하나에도 도난당할 물품에 대한 손실액이 부과됩니다.

..개인적인 부정직..

세상에는 자신의 명성을 아주 싼 값에 팔아 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저명한 어느 인사가 5달러도 채 안되는 물건을 훔친 혐의로 체포된 일로 인해 신문과 텔레비전 등 대중 매체들이 떠들썩하던 일이 기억납니다. 그분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그 사소한 행위로 인해 사람들 앞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결국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얼마만큼은 자신이 쌓아 올린 선행과 앞으로도 행할 수 있을 선행에 흠집을 낸 결과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안전을 위해 우리 몸과 짐을 검색당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추가로 지불합니다. 험박과 사취 등으로 남의 것을 부당하게 손에 넣으려고 하는 몇몇 사람들의 부정직한 행위로 말미암아 지불하는 그 비용만 해도 수익 원에 달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요구하는 보험금, 부정한 지출금, 위조 수표, 허위 문서 등, 이러한 것들은 모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전염성이 강한 증후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개인

별로 관련된 액수는 적을지라도 이를 합치면 개인적인 부정직성의 규모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개인적인 정직성..

어떤 사람들은 정직이라는 품성을 매우 평범한 주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라고 믿습니다. 정직이 없다면 인간의 삶과 사회 구조가 와해되어 추하고 무질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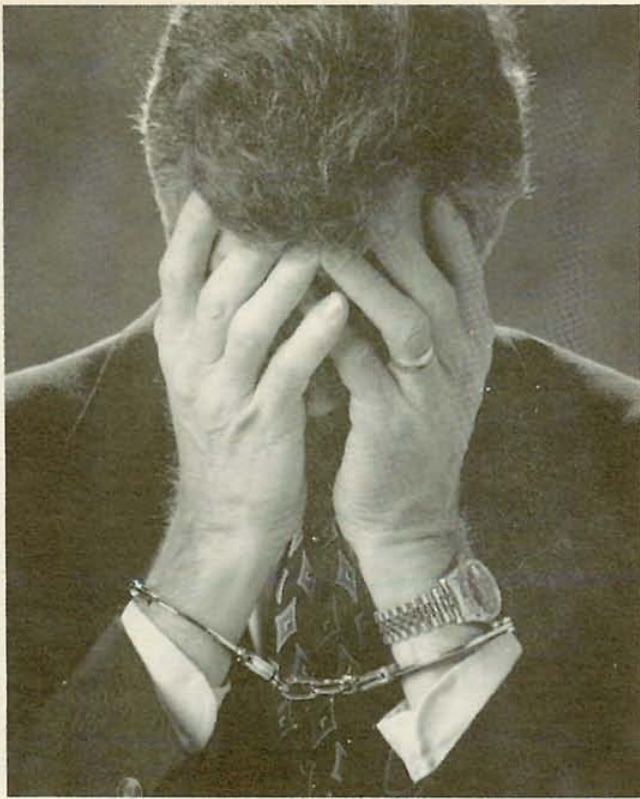
창세기에는 다음과 같은 훌륭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무론 한 실이나 신들메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창세기 14 : 22~23)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정직의 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나고야까지 기차를 타고 여행하던 일이 생각납니다. 역에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 나와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기차 안에 지갑을 두고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경 역에 전화를 해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약 세 시간 후 기차가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 그곳으로부터 지갑을 찾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도교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갑은 약 한 달 뒤에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우리에게 배달되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모든 것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같은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 미국 사람들은 조지 워싱턴(미국 초대 대통령, 1789~1797)이 체리 나무를 자른 것을 고백한 이야기와 에이브러햄 링컨(미국 제16대 대통령, 1861~1865)이 동전 한 닢을 주인에게 돌려 주기 위해 먼 길을 걸어갔던 이야기를 한번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의 결점을 들추어 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불의한 열정으로 위와 같은 정직에 대한 신념을 파괴하고 있으며, 여러 신문 및 방송 매체에서는 인간들이 저지르는 여러 가지 추악한 모습의 사기 행각을 마치 열병이라도 하듯이 줄줄이 쏟아 놓습니다.

한때는 사람들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표준에 의해 통



저는 한 저명 인사가 몇 달러 되지도 않는 물건을 훔친 혐의로 체포된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 분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그 사소한 행위로 인해 사람들 앞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제되던 것들이 이제는 법률로 다루어지기를 바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규는 점점 늘어 가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지출하는 경비도 수백만 달러에 이를 정도로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교도소 건물들도 끊임없이 늘어가고 있지만,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부정직한 행위는 점점 더 불어나고 있습니다.

..거짓은 새로운 것이 아님..

물론 거짓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창세기 4:9)

고대 이스라엘의 예언자였던 말라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말라기 3:8~9)

오순절의 기적이 있는 후에도 교회에 속한 일부 성도들 중에 거짓말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에 속한 개종자들은 그들의 땅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나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사도행전 5:1~5, 7~10)

..도적질 및 간음을 통한 부정직..

우리 시대에는 부정직한 행위를 한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처럼 숨지는 일은 없지만 그래도 그들의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숨겨 가고 있습니다. 양심이 질식하고 인간성이 메말라 가고 있으며, 자존심이 사라지고 성실한 태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시내산 위에서 돌판 위에 손가락으로 “도적질하지 말지니라”(출애굽기 20:15)라는 계명을 쓰셨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부연 설명이나 이유를 덧붙이는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가지 다른 계명을 주셨는데 그중 어느 하나를 어기든지 부정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

하지 말지니라”, “탐내지 말지니라”(출애굽기 20 : 14, 16, 17)

부정적인 행위 없이 간음이 저질러진 적이 있었습니까? 통속적인 언어로 이 악한 행위를 “부정한 짓”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분명 부정한 짓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간음은 순결을 빼앗으며, 충절과 성스러운 약속과 자존심과 진실을 강탈해 가기 때문입니다. 간음은 사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개인적으로 저지르는 부정적인 행위 가운데서도 가장 나쁜 행위입니다. 그 이유는 간음이 가장 성스러운 인간 관계를 깨뜨리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성약과 여러 약조들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간음은 신뢰를 거스리는 심각한 행위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이기적으로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형태의 부정적과 마찬가지로 그 열매는 슬픔과 비통한 심정과 비탄에 잠긴 배우자와 신뢰를 배신당한 자녀들입니다.

..거짓말..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의 핵심에도 역시 부정적이 들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증인들의 증언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아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으나 결국은 나중에 그 증인들이 위증을 했다고 고백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텔레비전에 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실이 아닌 것을 증언하는 거짓된 혀(시편 109 : 2, 잠언 6 : 17 참조)로 인해 명성에 금이 가고 마음이 상하며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를 접해 보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제2차 세계 대전과 관련된 국가들에 의해 자행되었던 여러 가지 책략에 관해 길고도 자세히 기술한 역사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주제는 윈스턴 처칠이 한 다음 말에서 취한 것이었습니다. “전시에는 진실이 너무 귀해서 그 옆에는 항상 ‘거짓말이라는 경호원이 따라 다녀야 한다.’”(제2차 세계 대전, 제5권, 고리를 끊으며, 보스턴, 호튼 미플린, 1951년, 383쪽) 그 책에서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양쪽 국가에서 자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속임수를 다루고 있는데, 이 책을 읽는 사람은 전쟁이란 악마의 놀이이며 그 속에서 가장 큰 희생자는 진실이라는 결론을



남아 일언 중천금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충실히 지키고자 한다면 정직하고 진실하며 미덕을 지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이처럼 쉽게 자행되는 거짓말과 속임수는 평화 조약이 이루어진 후에도 오랫동안 계속되며, 전시에 이러한 술책을 훈련받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시에도 그것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악은 마치 풍토병처럼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퍼져갑니다.

..탐욕..

“탐내지 말지니라.”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악인 탐욕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슬픔의 뿌리입니다. 탐욕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찮은 것과 자신의 삶을 바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은행의 간부들에 관한 내용을 다룬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은행의 은행장이 죽자 부은행장 중 선임자 한 명이 경선을 통해 기관장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명예를 한몸에 받고 있으며 유능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려는 탐욕 때문에 기존 원칙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나 하나 바꾸다가 결국은 완전히 파멸하고 만 사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은 자신이 이끌어 가려고

추구했던 바로 그 기관 자체를 파멸 직전까지 끌어 갑니다. 물론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사업이나 정부나 기타 여러 종류의 기관의 역사에는 이기적이고 부정직한 수단으로 위로 올라가기 위해 다른 사람은 물론 결국에 가서는 자신마저 파멸시키고야 마는 탐욕에 몰든 사람들에게 관한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착하고 훌륭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 결국은 자신의 목전에서 허무하게 꺼져 버리고 마는 무가치한 것들을 위해 자신의 성품을 팔고 마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들의 꿈은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악몽으로 변하고 맙니다.

정직한 사람 :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작품

간사함이나 속임수나 거짓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귀중하며 소중한 보석과도 같은 사람이겠습니까? 잠언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호와와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 칠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잠언 6 : 16~19)

오래 전에 한 영국 시인이 내린 다음과 같은 평가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작품이다.”(알렉산더 포프, 인생 찬가, 제3편, 248행) 정직이 있는 곳에는 여러 가지 다른 미덕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정직은 기본적인 원리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개조 제13조는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민에게에의 선행을 믿는다”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충실히 지키고자 한다면 정직하고 진실해 지지 않을 수 없으며 미덕을 지니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남아 일언 중천금이란 말이 있습

니다. 우리 가운데 조상들보다 덜 정직하고 덜 신뢰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직하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주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정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워 하지 않고 진리의 햇빛을 향해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교회의 회원 가운데 개선을 필요로 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즉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정직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과 또한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을 간구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도와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들과 또한 우리와 교제하는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정직이라고 알려진 품성은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이다.
2. 정직이 없다면 인간의 삶과 사회는 와해되어 추하고 무질서하게 될 것이다.
3. 부정직한 사람에게는 양심이 질식하고 인간성이 메마르며 자존심이 사라지고 성실한 태도가 사라진다.
4. 정직은 십계명 중 적어도 다음 네 계명의 요지가 된다 :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탐내지 말지니라.
5. 정직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정직한 사람은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임을 받을 수 있다.

*편집자 주 : 이 말은 진실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이 사용된다는 뜻임.

돕보 톱보에서의 하 루

그녀는 자신의 정직으로 인해 금전보다 더욱 소중한 것을 축복으로 받았다.

에시나스 무투만지

오늘 아침 일찍 나는 짐바브웨의 돕보 톱보에 있는 관공서로 갔다. 그곳에서 줄을 서 있었는데 한 여자가 20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땅바닥에 떨어뜨렸다. 그것을 본 나는 그 사실을 그녀에게 알려 주었다. 그녀는 지폐를 줍고 나서 나에게 “고마워요.”라고 말했다.

같은 줄에서 있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바보예요. 돈을 주웠으면 당신이 필요한 물건을 살 수도 있었는데 말이에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잠잠해지자 내 뒤에 서 있던 나이가 조금 들어 보이는 한 남자가 조용히 내게 말했다. “교회에 다니시는 모양이죠? 아가씨는 참으로 착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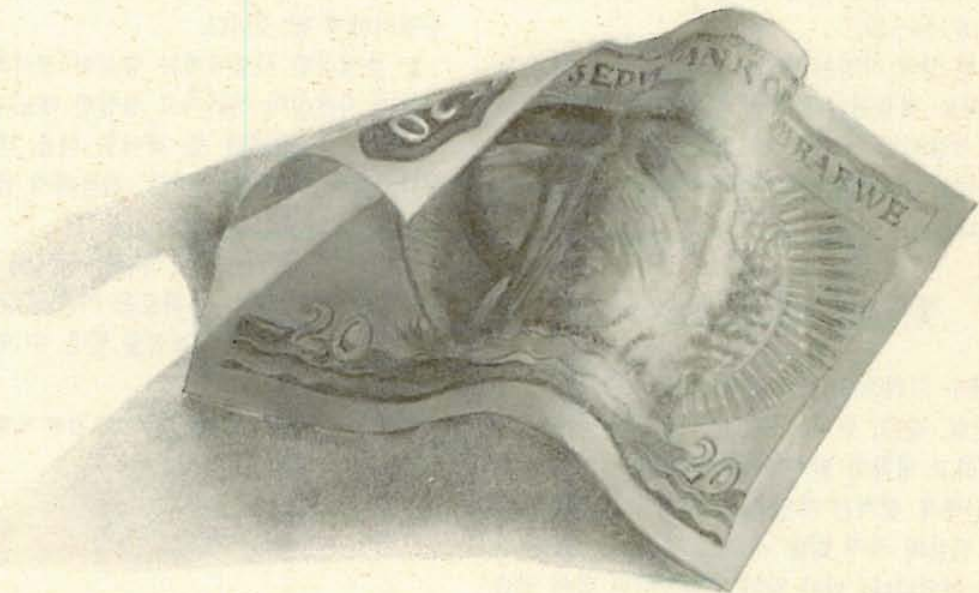
나는 “그래요,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라고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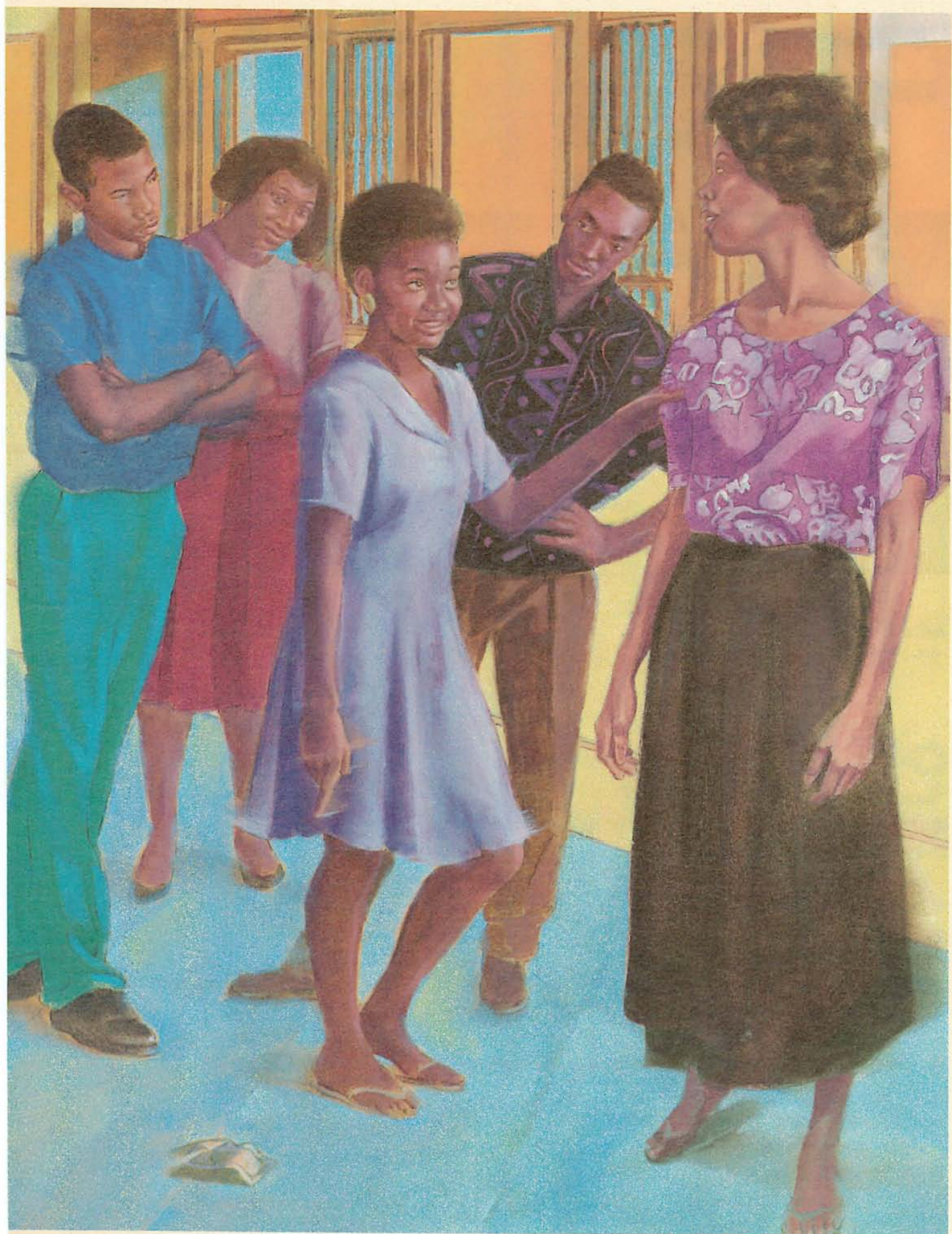
그러자 그 남자가 “어느 교회에 다니세요?”하고 물었다.

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교회에 오시고 싶으시면 매주 화요일 저녁 5시 반이나 일요일 오전 10시 반에 돕보 톱보 교회당으로 오세요. 그때에 만날 수 있을 거예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 남자는 “그래요! 꼭 가보고 싶군요!”라고 말했다.

나는 내가 오늘 한 일로 해서 대단히 기분이 좋았다. □





구조 활동



태드는 훌륭한 청년이다. 만일 여러분이 안전한 곳에 있다면, 그가 여러분을 찾으러 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래리 힐러

사진 촬영 : 래리 힐러

언젠가 태드 제습은 자신의 약속과는 달리 제 시간에 친구의 집에 모습을 나타내지 못해 그를 위해 훌륭하게 계획된 생일 파티에 참석하지 못한 적이 있었다.

한번은 또 학기말 시험을 보는 도중에 학교에서 나와 사람을 찾으러 간 적도 있다.

그는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될 경우 그 어떤 무도회보다 더 중요한 무도회에서 데이트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하고 달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도움을 청하고 싶은 사람일 것이다.

아홉 살짜리 어린이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 넘어지고 헤매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추운 밤에 그 아이 주변에서는 어두워지는 하늘 저편으로 점점



나무와 산이 시커멓게 변하고 있다. 그때 아이가 사람의 목소리, 곧 상상의 소리가 아닌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실제 목소리를 듣게 된다면 아이는 아무 소리도 못낼만큼 놀라고 말 것이다.

최근에 태드 제숍은 자신이 속한 구조반을 이끌고 자기가 전에 여러 번 사용했던 방법으로 탐색 작업을 지휘한 적이 있다. 태드는 일요일 저녁 노변의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가 콜로라도주 아라파호 구조대의 대장으로부터

호출을 받고 구조반 동료들과 함께 손전등과 자신들의 목소리를 이용하여 거친 지형을 통과하며 조직적인 탐색 활동을 벌였다.

탐색 활동이 다음 날 아침까지 계속되자 피로와 감기가 구조 대원들을 엄습하였으나 그들은 아직도 아이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후로 몇 시간이 지나서야 그들은 길을 잃은 아이가 길을 찾았으며 그곳에 있던 아이를 삼림 경비원이 발견했다는 소식을 라디오 뉴스를 통하여 듣게 되었다. 태드와

그의 동료들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시간에 아이는 부모와 재회의 기쁨을 나누고는 건강 검진을 위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열 여덟 살인 태드 제숍은 근 이 년 반 동안 콜로라도주 리틀톤 소재의 아라파호 구조대에서 자원 봉사자로 일해 왔다. 그는 수십 차례에 걸쳐 탐색 및 구조 임무를 수행한 전문가이지만 본인 스스로는 앞에서 말한 자신의 동료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구조 대원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구조대에 있는





열 개의 구조반 중의 하나인 태드의 구조반은 몇 시간 동안 또는 다리가 아파 걸을 수 없을 때까지 며칠을 걷기도 하며, 목소리가 잠길 때까지 소리치며 탐색 작업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탐색 작업 결과로 어떤 때는 길을 잃은 아이가 부모와 다시 만나는 것을 보며 흐뭇한 느낌을 갖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부상당한 등산객을 도와 주고 따뜻한 감사의 말을 듣기도 한다.

“조난당한 사람을 찾아내는 팀에 속해 있기가 무척 어렵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구조대에는 여러 구조반이 있어 지역을 여럿으로 나누어 찾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맡은 지역에서 탐색 및 구조 활동을 벌인 후, ‘이 지역에는 없음’이라고 보고하게 됩니다. 이러한 탐색 및 구조 활동이 지루한 일 같기도 하지만 꼭 누군가가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주거나 부상당한 등산객을 도와 주는 데서 오는 흐뭇한 느낌을 맛볼 기회가 거의 없는데도 그의 동료들은 어째서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난자들의 생각입니다.”라고 그는 대답한다. “만일 조난자가 여러분들의 집 밖 어딘가에 있다면 여러분들도 편히 잠을 이룰 수가 없을 겁니다.” 어느 구조반이 조난자를 구하게 되는 벽찬 감격의 순간을 갖게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조난자들이 구조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정말로 커다란 기쁨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여 말한다.

물론 조난자들이 모두 길을 잃어버린 아이들이나 어른들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암벽 등반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며,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주의로 인해, 또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여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사고를 당하게 된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 태드와 또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평소에 하던 일을 멈추고 구조 작업을 하기 위해 달려온다. 태드가 어디에 가든지 무선 호출기를 지니고 다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 태드가 자신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재시험을 치르고, 꼭 가야 할 무도회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 같은 일은 다른 대원들에게도 있다”고 그는 말한다.)

태드를 비롯하여 아라과호 구조대에 속해 있는 고등학교 연령의 대원들은 비상시 응급 처치 방법과 탐색 방법,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 그리고 절벽에서 구조하는 방법 등에 관해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다. 이 구조대는 자격을 갖춘 성인 지도자의 지휘를 받고 있는 중요한 조직으로 또한 지역 보안관의 관할 하에 운영되고 있다.

태드는 구조반의 지도자로서 항상 대원들의 정신과 육체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탈진이나 굶주림에 약한 대원들은 훈련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커다란 실수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일 중요한 임무는 저의 구조반 대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한 사람의 조난자를 구하기 위해 대원들 모두를 위협에 빠뜨리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그는 대원들의 안전이 자신의 가장 중

요한 임무임을 강조한다.

원한다면 어떤 사람에게라도 이것만 큼 흥미롭고 중요한 일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태드가 받은 축복사의 축복에는 이 지상 생활에서 영적인 균형이 필요하다고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행하는 구조 활동이 언제나 제일 우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며 일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은 선한 일이지만 그렇더라도 복음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태드도 자신이 하는 일과 복음 사이에서 갈등한 적이 있을까? “많이 있습니다. 일요일 훈련 모임과 같은 것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훈련 모임이 일 년에 두 번 밖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저는 그 훈련에 참여하는 편입니다. 그곳에서 저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일요일에 누군가가 길을 잃어 탐색과 구조 활동이 필요한 때도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때에도 활동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훈련 모임의 경우에는 교회에 참석을 합니다.”

태드는 자신의 영적인 생활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생활이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구조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영적인 생활에도 탐색하고 구조한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태드는 그가 속한 스테이크의 청소년 활동 위원회와 세미나리 평의회에서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실제로 “어느 청소년 대회 때에는 ‘탐색 및 구조’를 대회 주제로 삼은 적이 있습니다. 그 주제는 저의 아이디어가 아

태드와 다른 대원들은 비상 응급 처치와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 그리고 절벽에서 구조하는 방법 등에 관해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다. 이들의 목적은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태드가 개인적으로 행하는 기본적인 훈련은 경전을 공부하고 매일 기도하며 세미나리에 참석하는 것이다.



니고 다른 위원이 제의한 것이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또한 탐색이나 구조에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단순한 소망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준비가 필요하다.

태드는 매일 기도하고 세미나리와 교회 모임에 참석하며 매일 경전을 읽는 것 등을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받는다.

.....
탐색 및 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도 태드는 다른 임무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임무는 구세주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양들이 있는 우리로 다시 데려다 놓는 일이다.

태드는 물론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규칙적으로 읽고 있다. 태드와 대화를 나누어 보면 그가 참으로 열심히 경전을 읽고 있으며, 또한 경전에서 유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태드가 스스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잘 살펴보면 영적인 면에서 그가 가지고 다니는 무선 호출기와 비슷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과 교통하는 것이다.

현재 태드 제습에게는 밤낮의 구별이 없이 호출받는 일이 지극히 평범한 일이 되어 있다. 길을 잃어버린 등산객을 찾기 위해 등산로를 감시하는 일이 지루할 때도 종종 있다. 그리고 때때로 탐색 결과가 비극적일 경우도 있다. 탐색 작업은 대부분 어렵고 위험하지만 자기가 이끄는 구조반 대원

들과 자신들이 도와 줘야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의무감으로 항상 자신을 새롭게 한다.

그런 이유로 태드는 생일 파티에 빠지거나 잠시 동안이기는 하나 수업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는 여러분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절한 친구이다. 그는 항상 준비되어 있으며 관심을 갖고 있다. 이 밖에 무엇이 더 필요할까? 또 한편 그가 이제까지 준비해 온 다른 임무, 곧 선교사로 부름받는다면 태드가 그 부름에 이제까지와 똑같은 노력을 경주하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 부름이 선택 것이며 그 임무를 수행할 지역에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



또 하나의 성찬 모임

피트 알레드 버널

평소와 다른 성찬식일 뿐이었다. 전세계 도처에 있는 수천 곳의 예배당에서 말일성도들이 성찬식에 앉아 있을 시간이었다. 그런데 그때 이 성찬식을 특별하게 만든 일이 일어났다.

성찬이 전달된 후에 감독님이 일어나 연단에 서자, 나는 앉은 채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스피먼 가족이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제인이 감독의 정면에 앉아 팔로 남편의 등을 감싼 채로 있었으며, 남편 리차드는 갓 태어난 아들 토미를 안고 있었다.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면서 그는 아기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조엘을 자세히 쳐다보니 그 아이는 갓태어난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영적인 경험을 했다. 스피먼 가족을 보면서 나는 예배당에서 평화스런 느낌이 감돌고 있는 것을 느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엄마와 함께 앞줄에 앉아 있는 네 살짜리 애슐리 앤더슨이 복도를 따라 뒤쪽으로 가더니 델로이 닐슨 형제님의 무릎에 앉았다. 닐슨 형제님이 유아반에서 오랫동안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꼬마 아이들이 그분을 “양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르고 있었다.

간증 모임이 시작되었다. 전에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연로한 부부가 예배당 중간에 앉아 있었다. 형제님은 팔로 자매님을 안고 있었으며, 서로 은발의 머리를 가까이 대고 있었다.

한 젊은이가 일어나 조용하게 어린 아이에게 나가는 곳을 알려 주었다. 민디와 데이비드 부부의 아들인 개리였다. 가족들이 모두 사랑을 굳건히 하며 서로 영적으로 어루만져 주면서 포근한 영이 예배당을 감쌌다.

달라스 형제님의 어린 딸이 그분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무릎에서 일어나 아버지를 껴안았다. 꼬마 도넬리는 사랑과 정을 듬뿍 받으며 재키에게서 웨인에게로 건너갔다. 그 순간 예배당은 특별한 영이 감도는 아주 특별한 장소였다.

최근에 침례를 받은 김의 아들 야렛은 간증을 하고 나서 아버지 곁에 가까이 앉았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간증을 하였고, 그곳에 모인 회원들은 계속해서 영을 받아들였다.

나는 가만히 앉아서 이 예배당에 모인 성도들과, 그리고 전세계 도처에 있을 정규 예배당과 임대 건물에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영과 똑같은 영을 느끼고 있을 성도들을 생각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른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는 그들이 이 세상을 먼저 떠났기 때문에 나와 같이 혼자 예배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진정한 의미로는 혼자가 아니었다. 평범한 일요일에 평범한 시온의 스테이크에 속한 평범한 와드에서 모임을 갖고 있었지만 이 특별한 시간 동안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었다.

한 번의 성찬식이라도 우리가 이 모임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







회복을 찾아서

안젤로 스키폴라

내가 속한 교회를
역사적으로 연구한 결과
나는 서기 1세기말
초기 교회에 배도가
있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가 영원히 사라지도록
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꼭 존재하고 있어야 했다.

나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작은 마을 출신으로 고향에
는 레몬꽃이 활짝 피어 있
고, 발고랑 사이에는 서양배 나무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열매를 주렁주
렁 달고 있었다. 나는 천주교 사제가
될 준비를 하며 그곳에서 지낸 즐거
웠던 때를 기억하고 있다. 열 살에
신학교에 들어간 나는 고등학교를 졸
업하고서 시칠리아의 여러 도시에서
고급 신학 과정을 마쳤다. 그 당시에
나는 모범적인 신학생이었다.

그러나 노년에 이르른 지금에야 말
하는 나의 지나간 이야기에는 기쁨과
슬픔이 뒤섞여 있다. 일생에 걸친 고
통스런 구도 끝에 나는 선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그리스도인 및 비그리
스도인, 그리고 특별히 회복된 그리
스도의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주는
나의 신앙 고백으로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하였다.

1950년에 신부로 성임된 이후에 나
의 신앙 생활은 점차 흔들리기 시작
했다. 그후로 어느 시점에선가 나는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느
끼게 되었다. 이때가 내가 추구해 온
신앙에 대한 첫번째 위기였다. 그러
나 나는 이 사실을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 당시에 내 동료들
이나 상급자들이 이러한 나의 내적인
고통을 눈치채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나는 외적으로는 전과 같이 계
속 신자들에게 강론하고, 모임에서
기도하였으며, 또한 정규적으로 성찬
을 집행하였다. 상급자들은 나를 신
임하여 중책을 맡겼다. 여러 가지 일
을 수행하면서 또한 신학교 책임자로
임명되어 매우 인기높은 설교자가 되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오랫동안

CHIESA DI
GESU CRISTO
DEI SANTI
DEGLI ULTIMI
GIORNI



동안 간직했던 신앙이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불행했다. 나는 지니고 있던 의심을 몰아내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제까지 행한 것보다 더 깊이 신학을 연구하기 위해 로마에 있는 폰티피칼 대학교에 입학할 신청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져 나는 4년을 더 공부하고 교리 신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의심을 몰아내고 신앙을 강화하기는커녕 정반대의 결과를 낳은 채로 박사 학위만 하나 더 추가해서 시칠리아로 돌아왔다. 나의 신앙은 더욱더 산산조각이 난 상태였다.

나는 이 상황을 더 이상 그저 지나가는 위기로만 보지 않고 영원한 현실로 보게 되었다. 심히 고통스런 가운데 나는 단순한 신앙을 지니고 사는 교육받지 못한 신자들을 부러워하게 되었다. 나는 종교적 의심으로 인한 내적인 고통을 참아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도덕적이면서도 내가 믿고 있지 않는 교회에서 봉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신앙적인 난관에 부딪혀 있었다.

누군가가 나에게 조심하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를 계속하라고

스카폴라 형제와 자매는 리미니 지부에 소속되어 있는데 스카폴라 형제는 지부장으로, 그리고 스카폴라 자매는 상호부조회 회장단 보좌로 봉사하고 있다.

조언을 하여, 나는 국립 대학교의 문학 및 철학과에 입학하였다. 나는 거기서 4년 동안 내가 지니고 있던 질문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았으나 신앙은 계속 악화될 뿐이었다.

내가 지니고 있던 주요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 내가 속한 교회를 역사적으로 연구한 결과 나는 서기 1세기말 초기 교회에 배도가 있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면 결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과 이 사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결론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는 한 세기만 지난 후에 교회가 영원히 사라지도록 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다시 말해 교회는 영원히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면 배도가 일어난 원인에 대한 해답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의 교리를 물려받은 또 다른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딘가에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학위를 딴 이후에 나는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되었다. 오직 두 가지 길 밖에 없었다. 나의 양심에 어긋나는 성직자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나의 종교적 확신에 따라 교회와 신앙을 버리는 길을 가느냐였다.

나는 첫번째 길이 윤리적으로 볼 때 올바른 길은 아니지만 생각해 보면 가장 편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반면에 두번째 길에서는 수많은 난관을 거쳐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시점에서 주저하지 않았다. 1965년 9월 25일 나는 나의 교회와 내 직위에 공식적으로 마지막 작별을 고하였다.

예상했던 대로 그 결정으로 인해 주변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가까운 친척들은 나를 배척하기까지 했다. 돈도 없었고 외로웠다. 나는 북부 이탈리아로 가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나는 곧 블로그나에 있는 한 기술 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직업을 얻게 되었다.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서 나는 연구를 계속했다. 먼저 개신교를 연구하였는데 얻은 것은 예전보다 더한 혼란과 괴로움뿐이었다. 어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가져야 할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았다. 만일 당시에 몰몬경이 내 손안에 있었거나, 혹은 누군가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 말해 주었다면, 아마도 나의 영적인 방향은 거기서 끝났을 것이다.

불행스럽게도 당시에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를 찾는 일을 그만두고 이슬람이나 불교, 힌두교 같은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이로 인해 나는 동양 철학 전문가가 되었으며, 이 종교나 저 종교나 나름대로 좋은 점을 가지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로서 나는 종교에 대해 냉소적이 되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그분의 신성함을 믿고는 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는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했다.

그러던 중 나는 결혼을 하였다. 아내인 아이네스는 천주교 가정에서 자랐으나 활동적인 회원은 아니었다. 우리는 자녀들을 어떤 특정 종교의 분위기에서 키우지 않고 종교를 아이들이 직접 선택하도록 하기로 결정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나는 점차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다시 정규적으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나는 교회만 다니지 않았을 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를 열심히 찾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러는 동안 나는 나이를 먹어 육십을 넘게 되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나를 가엾게 여기셨는지 꿈을 통하여 곧 내가 찾던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셨다.

9월의 어느 맑은 아침, 나는 차에서 내리면서 멀리 서 있는 젊은 두 청년을 보았다. 그들은 마치 나를 아는 것처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다. 정말 이상하게도 평소 내가 성가신 의관원이나 선교사들의 접근을 피하기 위해 취했던 방어적인 태도가 그 청년들을 향해서만은 취해지지 않았다. 놀랍게도 마치 내가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것처럼 그들에게 이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비록 그들이 낯설기는 했으나 나는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단정하고 진실되어 보이는 젊은이들에게 우호적으로 대해주었다.

그들은 물론 선교사들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자 나는 번개를 맞은 사람처럼 충격을 받았으며 나는 마음속으로 커다란 기쁨을 가지고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나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의 질문에 답을 주시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나는 기꺼운 마음으로 선교사들로부터 물문경을 받아 벽찬 기대감으로 그날 저녁부터 읽기 시작했다.

책을 펴놓고 책상 앞에 앉은 나는 기쁨과 포근함으로 압도되었다. 내가 전에 느껴 보지 못한 달콤한 느낌이 나를 거의 한 시간 동안이나 무아지경으로 빠지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서는 물문경에서 내가 수십 년 동안이나 찾아 헤맸던 진리를 찾게 될 것이라는 심적인 확신을 주셨다. 물문경을 읽기 시작하자 그 책은 즉시 나를 사로잡았다. 물문경과 성경은 모두 나에게 성스럽고 확고한 계시를 담고 있었다. 곧 과거에 배도로 인해 타락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미 회복되었으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배도를 일으킨 것은 인간들이며,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다시 참된 교회를 지상에 세우셨다는 계시를 담고

있었다. 보다 작은 의미에서 보면 나도 이미 회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 해 동안이나 계속되었던 오랜 암흑이 드디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 드디어 나는 행복을 찾았다. 경전을 공부하고 선교사들이나 에지오 카라미아 지부장과 교리에 대해 토론을 계속하면서 나의 간증은 매일 커졌다. 선교사들과 만난 지 몇 달 후에 나는 침례를 받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 나의 아내 또한 몇 달 후에 침례를 받기로 결심을 하여 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얼마 후에 나는 아론 신권을 받고 다음에 멜기세덱 신권을 받았다. 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참된 교회라는 확신을 가지고 간증할 수 있다. 나는 또한 살아 계신 예언자와 현대의 십이사도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는 것을 감사한다.

이 모든 것은 많은 고통 속에서 형성되어 갖게 된 기쁜 간증이며, 나는 또 이 간증을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고 싶다. 하나님의 모든 사업이 영원히 존재하는 한, 그분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인 이 교회는 영원할 것이다. □

중앙 아메리카에서 발전하는 교회



사진 촬영: 필 서틀리프

중앙 아메리카에서는 일부 국가의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과 자연 재해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 지역 교회의 성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성도의 벗은 중앙 아메리카 지역 회장인 테드 이 브루어튼 장로를 만나보았다.

질문: 중앙 아메리카에서는 교회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대답: 과테말라와 벨리제,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그리고 파나마 등 일곱 나라에 이십오만 명이 넘는 회원이 살고 있으며 마흔 일곱 개의 스테이크와 열 개의 선교부, 그리고 성전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각 선교부에서 매달 이백 명 정도가 침례를 받고 있습니다.

질문: 이러한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지역에서 지도력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대답: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스테이크 부장과 지역 대표와 선교부장들이 효과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지역 출신이 아닌 지역 대표 열 분이 우리를

도와 주고 계십니다. 열 분의 선교부장 가운데 일곱 분이 라틴 아메리카 출신의 선교부장이며, 지역 회장단의 보좌들이 지니고 있는 배경과 지식이 우리의 힘을 더욱 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1보좌인 칼로스 에이치 아마도 장로님은 과테말라 출신으로 지도자의 경험이 많이 있으며, 제2보좌인 제이 켄슨 장로님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영적인 지도력에 대한 훈련을 예전보다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장로님 말씀에는 중앙 아메리카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답: 사실 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길이 미치신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1991년 3월쯤에 온두라스 북부 중앙 연안 지역에 위치한 라세이바에서 선교사들이 한 가족에게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 가족은 선교사 토론을 두 번 하고서는 관심을 잃어버렸습니다. 7월에 두 자매 선교사가 그 가족에 대한 기록을 찾아 그들을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자매 선교사들이 도착하였을 때, 그 가족의 어머니가 울고 있어서 선교사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녀가 선교사들에게 말할길, 자기가 꿈에서 두 살 난 아들을 보았는데, 알아보니 그 아이는 다른 식구들과 함께 두 번의 선교사 토론을 듣고 난 뒤 자매 선교사들이 방문하기 한 달 전에 죽은 아들이었으며, 그 아이가 꿈에서 어머니에게 “엄마와 아빠가 침례를 받아야 제가 침례를 받을 수 있어요”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준 후 그 어머니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자매 선교사들에게 물었습니다. 나머지 선교사 복음 토론을 듣고 난 식구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 가족 가운데 네 사람이 1991년 8월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러한 급격한 수적인 팽창과 더불어 교회의 영적인 힘도 커지고 있습니까?

대답: 그렇습니다. 복음 원리와 교리에 대한 지식이 새로운 회원들 사이에서도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일부 원인은 선교사들과 지역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성장의 원인을 또한 회원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과 혼란에 대처하는 방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질문 : 중앙 아메리카 일부 국가에서 당면하고 있는 정치적인 혼란과 자연 재해가 교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답 : 일부 국가에서 벌이고 있는 전투로 인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회원들의 가정이 지진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파괴되기도 했죠. 그러나 지난 해 화산 폭발로 화산재가 남부 과테말라를 뒤덮었을 때, 바람이 적절하게 불어 여섯 개의 교회 단위 조직이 있는 지역에서 화산재를 몰아냈으며, 가장 최근에 일어난 지진에서는 말일성도 중에서는 한 집도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모순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 당면하고 있는 혼란으로 인해 말일성도들의 자립 정신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들은 자국 출신 선교사들을 더욱 많이 불러야 했으며, 또한 지도력에 있어서도 막대한 짐을 스스로 어깨에 매어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 아메리카에 있는 열 분의 선교부장 가운데 두 분이 북아메리카 출신이 아니며, 이들 선교부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은 모두 라틴 아메리카 출신입니다. 이렇게 자립도가 커짐에 따라 회원들이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선교사들은 귀환을 하여 성전에서 결혼을 하고, 훌륭한 지도자와 회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질문 : 최근에 북아메리카 출신의 선교사들이 온두라스에서 추방을 당하였는데, 이들이 없는 가운데서 선교 활동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대답 : 온두라스에 있는 두 개의 선교부 모두 라틴 아메리카 출신 선교사들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스테이크와 워드는 지역에서 더욱 많은 젊은이들을 준비시켜 선교사로 불러 자립도를 크게 늘려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질문 : 일부 국가에서 일어난 갈등의 결과로 커다란 상처를 입은 회원은 없습니까?

대답 : 일부 회원들의 경우 그렇습니다. 일부 선교사들이

전쟁과 관련된 고통스런 과거라는 아픔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개종자들인데, 그중에는 전쟁에 직접 참가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삶을 바꾸었기 때문에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자신들의 과거로 인해 회개와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 행복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나 해야만 했던 일들을 정말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질문 : 교회의 성장이 모든 사회 계층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대답 :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 회원 수가 주로 경제적으로 중산층이나 그 이하에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사나 변호사, 기술자, 또는 교사 등과 같은 전문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침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자립심을 지도력의 측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책이든지 맡아 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하고 헌신적인 형제들과 자매들을 본다면 누구나 좋은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지역의 교회에는 훌륭한 자매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의 아내와 선교부장의 아내는 최근에 니카라과의 마나구아에서 오백 명의 자매님들을 만났습니다. 이 말일성도 자매님들은 그 나라에 만연된 가난과 여러 상황들로 인해 여러 해 동안 그 같은 모임을 가져 보지 못했었습니다. 함께 모인 자매님들은 영적으로 커다란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질문 : 회원들은 교회를 강화시키기 위한 자신들의 노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답 : 이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그다지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아주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이곳 회원들의 생활 중심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모이기만 하면 교회를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교회에 함께 있고 싶은 것이죠.

이들은 천성적으로 어떤 끄는 힘이 있고 또 영의 느낌에 민감합니다. 이웃이나 친구에게 종교에 대해 이야기할 때



과테말라 성도들에게 과테말라 성전은 영적인 심장이다. 중앙 아메리카 지역 회장인 레드 이 브루어튼 장로는 과테말라 성도들이 “천성적으로 어떤 끄는 힘이 있고 또 영의 느낌에 민감”하다고 말한다.

망설이는 법이 없습니다. 또 기도와 이것이 자신들의 생활에 미친 영향에 대해 격의없이 이야기합니다.

질문 : 교회가 중앙 아메리카에서 일반적으로 잘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대답 : 그렇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종교적 편견이 이제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몇 가지 일들을 행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과테말라에 있는 교회 집회소에 국기 게양대를 만들었으며, 이어 1991년 중앙 아메리카 모든 국가들의 독립 기념일인 9월 15일에 154개의 집회소에서 일제히 국기 게양식을 가졌습니다. 그 모임 중에 우리는 그곳 사람들의 평화와 또한 비가 내리지 않는 여러 나라에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모임에는 여러 정치 지도자와 군사 지도자 및 일반 시민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하여 정부 지도자와 그 밖의 비회원들이 교회의 입장 곧 우리 회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는 그곳 회원들이 교회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회원은 극소수입니다만, 아우구스토 대령 같은 사람은 군부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청렴 결백한 군복무로 인해 그는 다른 사람보다 명예롭게 은퇴하였으며, 나중에는 과테말라 성전장단에서 봉사했습

니다. 또한 스테이크에서 보좌로 봉사하시는 분의 자매님은 엘살바도르 정부의 부통령 비서로 일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자매님은 정말로 훌륭한 분입니다.

이같은 회원들은 종교와 종교에서 표방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담대히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 지역의 여러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번은 엘살바도르 정부의 실력자 한 분이 엘살바도르의 산살바도르에서 선교부장인 이스라엘 페레스 선교부장을 그의 사무실로 초대하여 선교사들의 입국 비자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여 주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우리 나라가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족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질문 : 중앙 아메리카에서의 교회가 성공하고 있는 다른 원인으로서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 두 가지 경전 구절이 떠오르는군요. 하나는 힐라맨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레이맨인들이 성심을 다하여 선선히 주의 말씀을 믿으려 하매, 주가 레이맨인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 주심을 아는도다.”(힐라맨서 6:36)

두번째 구절을 읽어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연단에서 말씀을 하게 되면, 이 충실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얼굴을 쳐다보곤 합니다. 성전에 가서 하얀 성전복을 입고 있을 때, 저는 저보다는 조금은 피부색이 검은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떠올린 두번째 구절은 구세주께서 니파이삼서에서 멸망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의 백성이요, ...언약의 백성이라.”(니파이삼서 20:25) 이스라엘의 목자께서는 그분의 양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

이노스와 같은 기도

내가 주님께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자 그분은
기다렸다는 듯이 내게 축복을 주셨다.

크리스티 앤 질즈

저 녁 기도를 드리려고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기쁨으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외로움과 분노에서 오는 것이었다. 내가 기대했던 느낌이 전혀 아니었다.

유타주 프로보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에서 맞는 두번째 밤, 내 기분은 참 답답했다. 나는 동반자가 싫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도 싫었으며, 어린 아이와 같이 성숙되지 않은 내 자신도 싫었다.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으나 별로 드릴 말씀이 없었다. 비록 대화를 나눌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하긴 했으나, 나의 외롭고 허전한 참담한 기분을 하나님 아버지께 이야기한다는 것이 옳은 일 같지가 않았다. 나는 결국 평상시에 하는 상투적인 기도, 곧 “건강을 살피고 주시고 훈련원에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하고는 침대에 엎드렸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걸까?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나의 기분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도대체 나한테 무엇을 기대



사진 촬영 : 크레그 다이먼드

하고 계시는 걸까?

그때 오후에 읽은 이노스서가 생각났다. 숲 속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을 용서하고 도와 주시도록 주님께 간구한 이노스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이노스가 한 다음 말씀이 내 마음속에 메아리쳤다. “하나님께 나의 온 심령을 기울여 저들을 위해 간구하였더라.”(이노스서 1:9)

내가 이같이 해본 적이 있었는가?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간구해 본 적이 있었을까? 나는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다시 무릎을 꿇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할 말이 많이 있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느낀 좌절감과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없었던 일, 그리고 동반자를 사랑하는 방법 및 훌륭한 선교사로 봉사하고 싶은 소망 등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다.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느끼는 외로움과 또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예레미야 29:13)

이번에 나는 말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를 하였다. 그러자 다시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전과 같은 것이 아니라 희망과 평화와 사랑으로 타는 것 같았다. 잠자리에 들면서도 나는 여전히 내가 기도했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를 모르고 있었으나 그것들이 확실히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

장애자들을 도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육체적이나 정서적이나 또는 정신적인 장애를 지니고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주는 축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요한복음 13:35)

여러분 중에는 장애를 지니고 있거나, 또는 장애를 지니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청력이나 시력을 잃은 분도 있으며, 정신 질환을 지니고 있거나 지능에 문제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 학습 능력에 문제가 있거나 심한 행동 장애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장애자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음

구세주께서는 사람들이 처해 있는 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받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커다란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더욱 잘 이해하고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구세주께서 보여 주신 완전한 모범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장애자를 자녀로 두고 있는 어느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녀의 장애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인정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제 아이는 90퍼센트는 보통 아이들과 똑같고 단지 10퍼센트만이 장애를 지니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아이의 장애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세주께서 몸소 보여 주신 사랑과 연민의 정을 본받는다



로리 앤더슨 필그림

면 장애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앞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한 십대 청소년은 워드 회원들이 자기와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해줄 때에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귀가 먹은 한 아이는 수화를 배워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인사를 하는 감독님을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한 어머니는 친구들이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자기 아들을 이상스런 눈으로 보기 때문에 아들을 교회로 데려갈 수가 없다며 슬픔에 잠겨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애에 관한 말을 하면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것을 우려하여 내게 우리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결코 꺼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내게 브랜든이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냐고 물어줄 때, 저는 기운이 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장애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관심과 사랑을 보일 수 있는가?

우리가 도와 줄 수 있음.

우리가 영에 민감하고 서로 사랑하기만 한다면, 장애를 지니고 있는 사람을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행동에 심한 장애를 지니고 있는 한 청년 자매는 자신에게 익명의 편지와 자그마한 선물을 보내주는 청년 반원들을 친구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눈이 먼 한 자매는 교회 활동이 있는 날 자신을 교회까지 태워다 주는 회원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정신 질환에서 회복 중에 있는 한 자매는 친구 하나가 시간제 일자리를 알선해 주었을 때 무척이나 기뻐합니다.

는 사람을 돌보고 있는 사람 또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육체적, 사회적, 그리고 정서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장애를 지닌 아이와 함께 몇 시간 동안이라도 같이 있어 준다든지, 또는 부모가 그 아이와 함께 병원에 갈 때 다른 아이와 함께 있어 준다든지, 아니면 의사를 만나러 갈 때 교통편을 제공하여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자를 돌보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 활동에 참여시키고, 도움을 제공하여 그들이 느끼는 정신적인 긴장감을 덜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자를 자녀로 둔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천성이 낙천적이고 저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는 한 친구가 있어서 때때로 울먹이며 제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그 친구에게 털어놓는 것이 커다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장애자나 또는 이들의 가족을 도와 줄 수 있는가? □

조셉 에프 스미스

가족을 통해 얻은 축복

아더 알 배싯

가족의 가치가 쉽게 위협받고 부모와 자식간에 적대감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때에 서로가 굳건한 사랑의 끈으로 맺어진 가족을 보면 가슴이 뿌듯해지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제6대 대관장인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이 자신의 가족에게 가졌던 느낌이다. 스미스 대관장이 재직하는 동안에 가정과 가정의 밤의 중요성과 가족 생활의 가치를 특히 강조했다는 것은 그 의의가 매우 깊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그러한 가정과 가정의 밤과 가족 생활의 가치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요즘 다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셉 에프 스미스는 어렸을 때 양친을 잃고 고아가 되었다. 그가 그토록 가정의 안전과 사랑을 강조했던 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이었을 것이다.

조셉의 부친인 하이람 스미스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형이었다. 예언자와 하이람은 조셉이 다섯 살 어린 나이 일 때 폭도의 총에 맞아 숨졌다. 하이람이 평생을 통해 예언자 요셉의 절친



한 친구요 후원자였으며, 요셉도 자신의 목숨만큼이나 형 하이람을 사랑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주님도 “저의 마음이 고결하며 내 앞에서 올바른 것을 사랑하므로”(교리와 성약 124 : 15) 하이람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다.

“내게 작별의 입맞춤을 하셨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는 일생 동안 부친을 깊이 사랑했다. 부친에 대한 마지막 기억으로는 부친 하이람이 말을 타고 카테지 감옥으로 가던 모습이었는데, 그 기억은 매우 생생했다. 후에 스미스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다. “부친은 말에 올라 타신 채로 안장에 몸을 기대고 저를 번쩍 안아 올리시더니 작

별의 입맞춤을 하신 뒤 다시 땅에 내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떠나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아무런 소식도 없이 며칠이 지난 뒤였다. 끔찍한 밤이었다. “부친이 살해되었던 그날 밤이 생각납니다. …형제님 한 분이 카테지 감옥에서 오셔서 어두워진 뒤에 우리집 창문을 두드려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스미스 자매님, 형제님이 살해되었습니다.’” 이 일은 소년 조셉이 다섯 살 때에 일어났지만 수십년이 지난 뒤에도 그 공포에 떨던 밤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어머니의 기도.

하이람이 사망한 지 2년 후 조셉 에프 스미스와 그의 어머니 매리 필딩 스미스는 다른 많은 몰몬 개척자들과 함께 북미의 평원을 횡단하기 시작했다. 스미스 자매에게는 자신의 두 자녀의 에도 살해된 남편과 그보다 앞서 사망한 남편의 첫번째 부인에게서 난 다섯 자녀를 돌보고 있었다. 조셉은 일곱 살 때 네브라스카주 윈터 쿼터스까지 가족의 소떼를 몰고 갔으며 아홉 살에



는 솔트레이크 계곡까지 마차를 몰고 갔다.

평원을 지나는 동안 소년 조셉은 어머니에게서 신앙에 관한 교훈을 많이 배웠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깬 스미스 가족은 가장 좋은 소떼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 소년 조셉과 외삼촌인 조셉 필딩은 오전 내내 소떼를 찾아다녔으나 헛수고만 하였다. 피로에 지치고 실망감에 싸여 야영지로 돌아와 보니 매리 필딩 스미스 자매는 무릎을 꿇고 소가 없으면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데 시간이 더욱 지체되므로 소떼를 찾게 도와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선 이 젊은 개척자 어머니는 자신의 동생과 아들에게 아침 식사를 하라고 한 뒤에 자기가 소떼를 찾아 오겠다고 하였다. 더 이상 찾아봐야 헛수고일 뿐이라는 동생의 만류를 뿌리치고 그녀는 강쪽으로 향해 갔다. 처음에는 남동생의 말을 무시하고 다음에는 미주리에서 대형 마차로 가축을 몰고오던 사람이 그날 아침 반대 방향에서 소떼를 보았다는 말도 못들은 채하며 매리 필딩 스미스는 강쪽으로 계속 걸어갔다. 그러다가 강둑에서 그녀는 뒤를 돌아다 보고 동생과 아들에게 와 보라고 손짓하였다. 동생과 아들이 그곳에 가서 보니 소떼가 버드나무 숲 사이에 묶여 있었다. 그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아마 누군가가 개척자들이 길을 떠나고 나면 끌고 가려고 그곳에 묶어 놓은 듯 했다.

후에 스미스 대관장은 이 일을 “기도의 효과가 어떤 것인가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 주는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일로 마음에 깊은 감명을 받아 평생 동안 어떤 일에도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솔트레이크 계곡에 들어간 지 4년 후—조셉 에프가 열 세 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며 조셉은 고아가 되었다.

..외로운 선교사의 꿈..

조셉 에프 스미스는 열 다섯 살이 되던 해에 장로로 성임받아 엔다우먼트를 받은 후 하와이 제도로 선교 사업을 떠났다. 그는 그곳에서 심한 질병에 시달렸으며 그 나이의 어린 소년으로서서는 좀처럼 경험하기 힘들 정도로 커다란 시련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그의 영혼은 더욱 성숙하게 되었으며 영적인 이해력이 더욱 넓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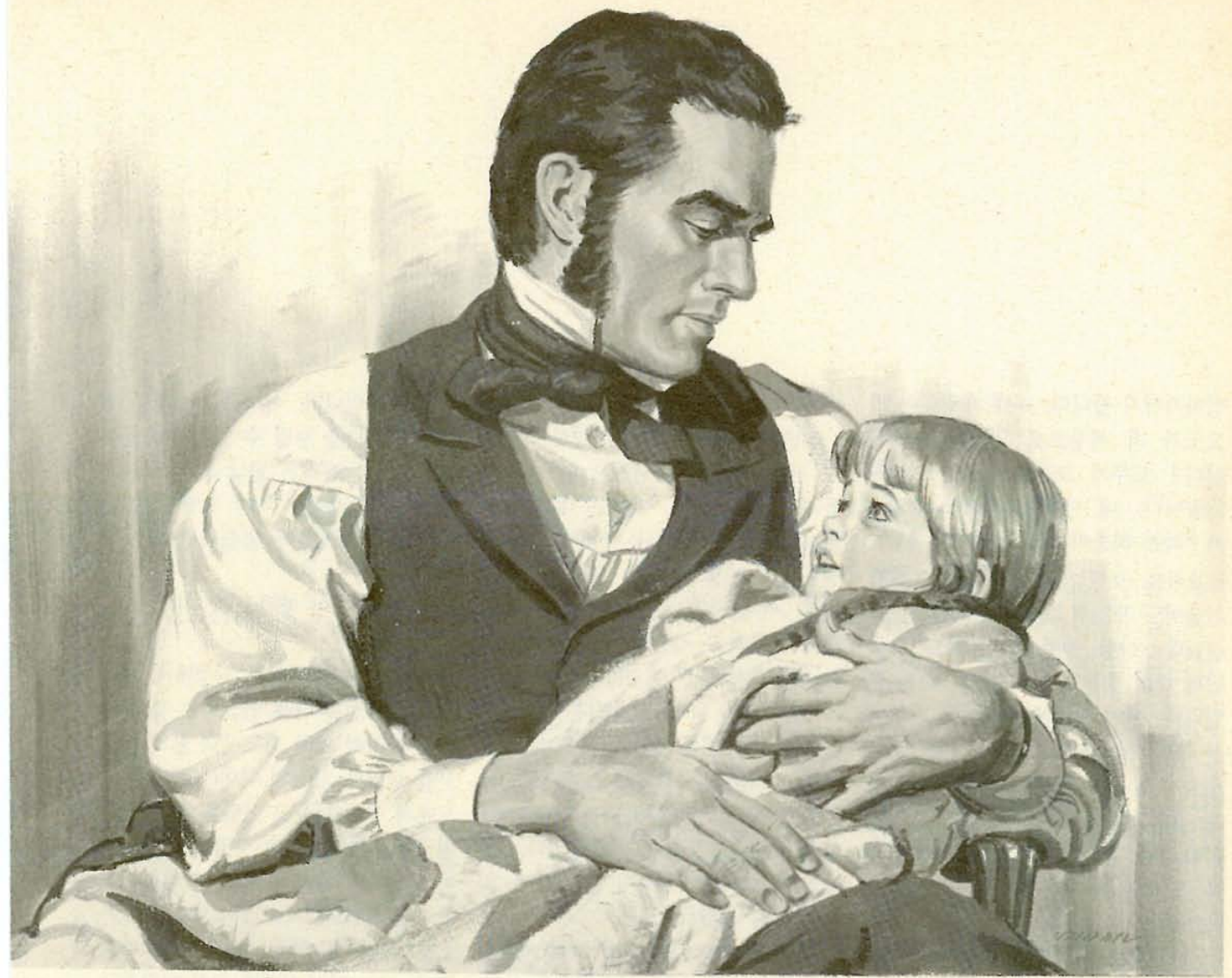
그 예로 그는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큰 좌절감에 빠져 있던 때에 한 가지 꿈을 꾸었다. “나는 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치 내 자신이 재산도 없고 지혜나 지식도 부족한 그저 하나의 아이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며 감히 사람들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지도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 꿈에서 조셉은 숙부인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아버지 하이람 스미스 및 어머니 매리 필딩 스미스를 보았다.

이 꿈을 통해 그는 위안을 얻을 수 있었으며 예언자와 구원의 계획에 대한 간증을 더욱 굳건하게 할 수 있었다. “그날 아침 잠에서 깨었을 때 나는 몸은 소년에 불과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잠자리에서 시련을 보고 확신과 간증을 얻음으로써 저는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으며 선한 사람, 다시 말해 주님 앞에 청결하고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꿈을 통해 저는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사랑의 축복을 받아..

조셉 에프 스미스가 일생 동안 외로움에 싸여 있거나 가정을 갖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두번째 선교 사업을 떠나기 직전인 20살 때 레비라 스미스와 결혼했다. 그리고 나서 영국에서 두번째 선교 사업을 했는데, 그는 이 기간 동안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받았다. 후에 그는 다섯 명의 아내를 더 두었는데(당시는 복수 결혼이 교회의 관행으로 되어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은 각각 줄리나 램슨, 사라 엘렌 리차즈, 에드너 램슨, 앨리스 앤 킴볼, 매리 테일러 슈와츠이다. 이들로부터 48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그 중 조셉 필딩 스미스는 성장하여 교회의 제10대 대관장이 되었다.



가족에 대한 스미스 장로의 사랑은 몇 날 밤이고 계속 이어졌다. 그는 딸 머시 조세핀이 병에 걸려 숨지는 날까지 계속 팔에 안고 간호하였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가족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가운데는 그가 아버지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있었던 다음 이야기도 포함된다. 당시 그는 수입이 매우 적어서 겨우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다. 이처럼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크리스마스 전에 “자녀들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해 시내로 나갔다.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고, 성탄절을 평상시와는 다르게 보낼 무언가를 사

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겐 동전 한 푼도 없었습니다. 가게 유리만 기웃 기웃 들여다 보며 온 시내를 배회하였습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안보이는 곳으로 가서 땅바닥에 주저 앉아 가슴 속이 후련해질 때까지 마치 어린 아이처럼 눈물을 떨구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을 나설 때와 같이 빈손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을 위해 함께 기쁘고 즐겁게 놀아 주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또 한 가지 일화는 그가 “도도”라는 애칭으로 불렸던 맏딸 머시 조세핀이 어린 나이에 숨졌을 때에 관한 것이다. 도도는 세 살에 숨졌다. 아이를 안고 얼리며 몇 날 밤을 간호하던 스미스 장로는 어느 날 밤에 아이가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다음날 아침 도도가 “아빠, 나 오늘밤엔 같거예요.”라고 하는 말에 그의 가슴은 찢어질듯 아팠다. 조금 후에 도도는 숨을 거두었다.

그는 한 편지에 그때의 심경을 이렇게 적었다. “과연 지금 제가 글을 쓰고 있는지도 믿기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마음은 너무나 아프고 머리속이 온통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만일 제가 불평하고 있는 것이라면 부디 하나님어 용서해 주시길 기원할 뿐입니다. 지금 제 심정은 가슴이 온통 같 같이 찢어질 듯합니다. 몹시 외롭습니다. 집도 황량하기 그지 없으며 음

산하기까지 합니다. …내 사랑하는 딸 도도가 저 세상으로 떠나가 버렸답니다! 도무지 그러한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선 그게 정말일까?라는 의문이 자꾸 일어납니다. 둘러보아도 도도는 보이지 않고, 귀를 기울여도 도도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방 저방 살펴보아도 모두 텅텅 비어 쓸쓸한 적막감이 감돌 뿐입니다. 행여 햇빛에 반짝이는 자그마한 금발 머리와 발그레한 장미빛 볼이 보이지 않을까 하여 정원을 내려다보고 집주위를 살펴보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 쿵쿵거리던 그 작은 발자욱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빠를 바라보던 그 사랑을 가득 머금어 빛나던 웃음뎀 귀여운 까만 눈동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연신 이것 저것 물어보던 사랑스러운 가녀린 목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내 목을 꼭 껴안고 매달리던 그 부드럽고 귀여운 손도, 내가 가만히 안아 입을 맞춰 주면 천진난만하게 뽀뽀해 주던 귀여운 빨간 입술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텅 비어 있는 조그만 의자 밖에는 아이의 조그마한 장난감들은 어디론가 치워져 보이지 않고 옷가지도 모두 치워져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도도는 여기에 없다. 도도는 떠나버렸다! 는 쓸쓸한 생각이 낯덩이를 매단 것처럼 육중하게 마음을 짓누를 뿐입니다. …정말 이지 슬퍼서 미칠 것만 같습니다. 제가 도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 밖에는 모르실 겁니다. 도도는 제 마

음의 빛이자 기쁨이었습니다.”

46년이 지난 후—그가 사망하기 약 2년 전에—스미스 대관장은 일기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오늘은 내 맏아이며시 조세핀이 태어난 지 49년이 되는 날이다. 가장 예쁘고 총명한 아이였다. 머시는 내 온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3년이었던 기억만을 남긴 채 1870년 6월 6일, 세 살의 어린 나이로 숨졌다. 정말 그 어린 사랑과 빛의 천사를 내 얼마나 좋아하고 소중히 여겼지는 모른다.”

조셉 에프 스미스에게는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다. 주님의 예언자인 대관장이 된 직후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가정을 떠난 참된 행복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영향력을 신성하게 보존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가정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는 이들에게는 기쁘기 한이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가정 생활보다는 어떤 다른 생활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가정은 구속을 의미하며 최고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리 저리 다닐 수 있는 기회를 가장 많이 확보하는 데 있다고 믿으려고 합니다. 수고 없는 행복이란 없으며, 가정을 거룩한 곳으로 변모시키려 하고, 가정을 지키고 가정 생활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수고보다 더 위대한 수고는 없습니다.

“가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사회 복지를 위한 중요한 요소가 결

여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회적 쾌락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한 쾌락은 한낱 허구에 불과할 뿐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남는 결과는 오직 실망밖에 없습니다.”

평생 동안 행한 선교 사업.

조셉 에프 스미스는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것 외에도 선교사와 교회 지도자로 삶의 대부분을 보냈다. 15세의 나이에 하와이 제도에서 첫번째 선교 사업을 행한 이래 영국에서 3년간 선교 사업을 하였으며 이어 27세의 나이에 사도 및 대관장단 보좌로 성임되었다. 그는 사도의 신분으로 유럽 및 영국 선교부장을 역임했다. 그는 다시 41세에 교회 대관장단의 일원이 되었으며 그후 80세를 일기로 사망할 때까지 약 40년간을 대관장단에서 봉사했다. 반평생을 대관장단에서 보낸 셈이다. 그는 브리감 영 대관장의 보좌로 봉사한 외에도 존 테일러, 윌포드 우드럽, 로렌조 스노우의 보좌로도 봉사했다. 그런 후 1901년 62세에 교회 대관장이 되었다.

스미스 대관장의 생전에 교회는 복수 결혼의 관행 때문에 미국 정부의 탄압을 받아 왔다. 스미스 대관장은 교회에서 그 복수 결혼의 관행을 가장 훌륭하게 지켜 온 사람 가운데 한 분이였다. 그 때문에 얼마 동안 그는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도피 생활을 해야 했다. 그는 식구가 많은 자신의 가정



경전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스미스 대관장은 영의 세계에서 구세주께서 의로운 성도들과 예언자들로 선교사를 조직하여 영육에 있는 영들에게 보내시는 것을 시현으로 보았다.

과 함께 생활하며 돌보지 못한다는 사실로 인해 큰 슬픔을 느꼈다. 그러다가 1888년과 1889년에 걸쳐 그는 워싱턴시로 가 말일성도들을 억압하는 법률을 폐지시키기 위해 미국 정부와 협상을 벌였다.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이 1890년에 복수 결혼을 중단하라는 성명서로 알려진 계시를 받은 후에도(교리와 성약 선언문 참조), 스미스 대관장은 교회

와 정부간의 갈등을 완화시키고 교회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선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스미스 대관장이 교회를 관리하는 동안 교회는 크게 번성하고 성장했다. 그는 예언자로서 신권 정원회의 역할을 강화시켰으며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진리의 교사.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이 교회에 남긴 가장 큰 업적 가운데 하나는 복음을 더욱 올바르게 가르친 것이었다. 그는 예언자로 봉사하는 동안 보좌들과 함께 인간의 기원이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등과 같은 주제에

관한 교회의 교리를 명확하게 밝혔다. 그들은 또한 거짓 가르침에 대해 경고하기도 하였다. 스미스 대관장 사후에, 그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묶은 복음 교리라는 책이 출간되었다.

그의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시현”이 경전에 추가되었는데 교리와 성약 138편이 그것이다. 스미스 대관장은 타계하시기 6주 전인 1918년 10월 3일 한 시현을 통해 구세주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영의 세계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았다.(백드로전서 3:18~20; 4:6 참조) 스미스 대관장은 구세주께서 이미 사망한 의로운 성도들

과 예언자들에게 성역을 베푸시는 것을 보았으며 사악한 영들과 회개하지 않은 영들에게 나아가 선교 사업을 하시는 것도 보았다.

이 놀랍도록 훌륭한 계시는 연로한 예언자가 자신의 방에서 “경전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주어졌다.

“내가 깊이 생각한 것은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행한 무한하신 속죄의 희생과,

“하나님 아버지와 세상의 구속주로 온 아들이 보여 준 무한하고 크신 사랑이었으며”(교리와 성약 138:1~3)

시현을 통해 스미스 대관장은 “성도들[이] 그들의 구속을 기뻐하...고, 무릎은 꿇어 절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과 지옥의 사슬로부터 구해 낸 그들의 구속주와 구원자라고 말하”(23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몹시 귀여워했던 딸 “도도”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모두 스미스 대관장의 시현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려는 그분의 계획과 충실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가족이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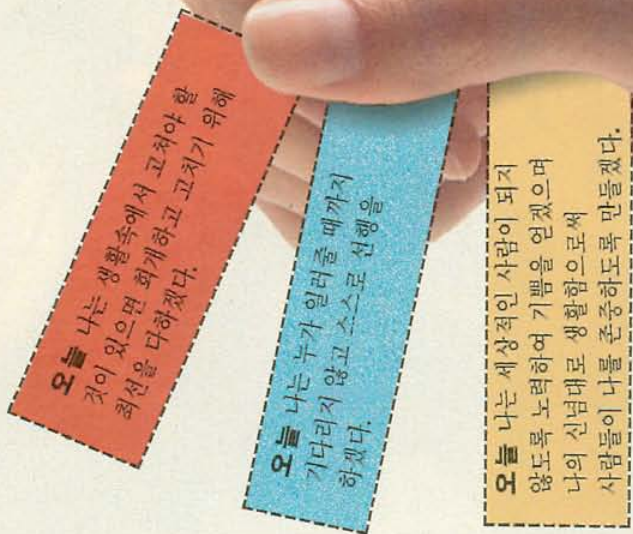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1838~1918)

연도	나이	일어난 일
1838년	—	11월 13일 : 미주리주 파웨스트에서 출생.
1844년	5세	아버지, 하이람 스미스의 순교.
1846~48년	7~ 9세	소매를 물고 평원을 건너 솔트레이크 계곡까지 감.
1852년	13세	어머니 매리 필딩 스미스의 사망으로 고아가 됨.
1854~57년	15~18세	하와이에서 선교 사업을 함.
1859년	20세	레비라 에이 스미스와 결혼 : 고등 평의원으로 부름받음.
1860~63년	22~25세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함.
1865~74년	27~36세	주 의회 의원으로 봉사함.
1866년	27세	7월 1일 : 사도와 브리감 영 대관장의 보좌로 성임됨.
1874~75년	35~37세	유럽 영국 선교부장으로 봉사함.
1880년	41세	10월 10일 : 존 테일러 대관장의 제2보좌가 됨.
1884~88년	45~49세	복수 결혼에 대한 박해로 피신함. 미국, 멕시코, 하와이 및 캐나다에서 일함.
1888~89년	49~50세	워싱턴시에서 교회를 위해 의회 로비 활동가로 일함.
1889년	50세	4월 7일 :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의 제2보좌가 됨.
1898년	59세	9월 13일 :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의 제2보좌가 됨. 후에 제1보좌로 지지받음.
1901년	62세	10월 17일 : 교회 대관장으로 지지받음.
1906년	67세	대관장 재직 기간 중 유럽 여행을 함.
1918년	79세	10월 3일 :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시현을 봄.
	80세	11월 19일 :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사망.

참고 서적

1. 조셉 필딩 스미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북 출판사, 1969년.
2. 프랜시스 엠 기븐즈, *조셉 에프 스미스 : 축복사이며 선교사인 하나님의 예언자*,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북 출판사, 1984년.
3. 조셉 에프 스미스, *복음 교리*,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북 출판사, 1986년.

독자를 위한 참고 사항



오늘 나는 생활속에서 고쳐야 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고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나는 누가 일러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선행을 하겠다.

오늘 나는 세상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기쁨을 얻겠으며 나의 신념대로 생활함으로써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도록 만들겠다.

오늘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잊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하겠다.

오늘 나는 싫어하는 일은 잊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 가장 좋아하는 일들에 대해서만 생각하겠다.

오늘 나는 무슨 일을 하건 계속 열심히 하겠으며 그 일을 마칠 때까지는 중단하지 않겠다.

오늘 나는 격려나 이해가 필요한 사람에게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겠다.

오늘 나는 하루 종일 온 마음을 다해 진지하게 기도하겠다.

오늘 나는 어려워서 오랫동안 미루어 왔던 일을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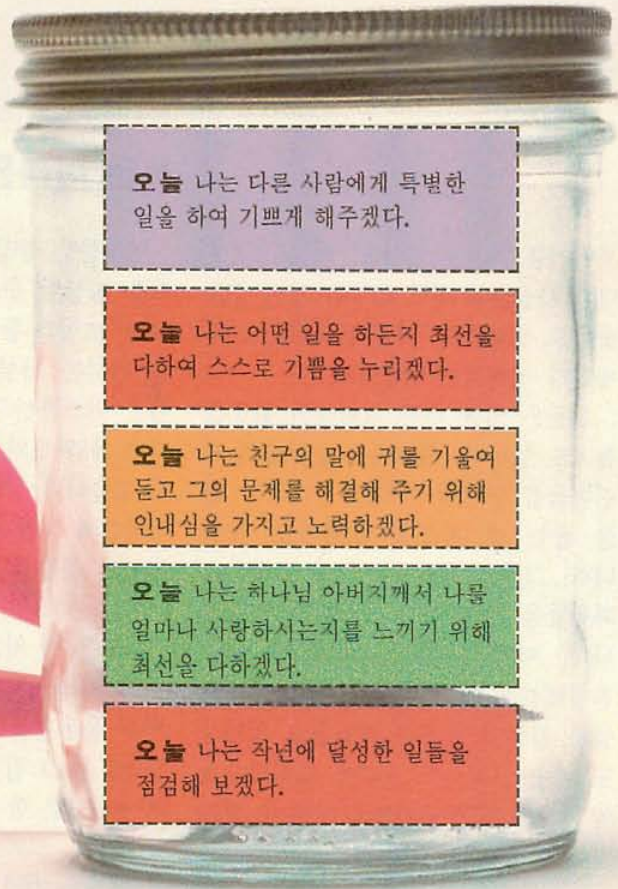
오늘 나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러시듯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매우 소중한 사람으로 보기 위해 노력하겠다.

오늘 나는 가족 모두에게 훌륭한 일을 하여 가족들이 내가 한 가족인 것을 기뻐하도록 노력하겠다.

게리 크리스찬슨
사진 촬영 존 쿠크

33쪽과 35쪽에 기록된 목표들을 하나 하나 잘라서 향아리 속에 넣는다. 그런 다음 매일 한 장씩 꺼내 그곳에 기록된 내용대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

목표의 달



오늘 나는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일을 하여 기쁘게 해주겠다.

오늘 나는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여 스스로 기쁨을 누리겠다.

오늘 나는 친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나는 작년에 달성한 일들을 점검해 보겠다.



테네리페의 십대 청소년들

북아프리카 해변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테네리페라고 하는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이곳의 말일성도 청소년들은 강하고 잘 단합되어 있으며 선교 사업도 잘 되고 있습니다.

테네리페는 스페인령의 일부인 카나리 군도의 한 섬입니다. 주민들은 스페인 사람들처럼 보이며 스페인어를 사용합니다. 카나리 군도에 교회가 세워진 지는 겨우 10여년 정도에 불과하지만, 와드와 지부에는 가족 모두가 회원인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힘의 커다란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교사들과 함께 봉사하며 많은 새 친구들을 교회에 데려옵니다.

“저희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라고 17세인 오스카 에리라 리베로는 말합니다.

그들은 또한 다른 회원들의 활동을 돕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공원에 데리고 놀러가는 일을 돕는 데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전체 스테이크 회원들을 위해 재능 발표회도 열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회원들이 더욱 친밀해졌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구도자들과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참석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몰몬 마라톤

여러분은 장장 25시간 동안의 긴 모임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 긴 모임을 통해 실제로 훌륭한 경험을 한다는 사실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위스콘신주 매디슨 스테이크 매디슨 제3와드의 청남 청년들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간에 걸친 공휴일 동안 내내 함께 모여서 몰몬경 한 권을 모두 읽었습니다.

그들은 한 지도자의 집에 모여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식사 시간 외에는 계속 몰몬경을 읽었습니다. 그런 후 청년들은 그 집 밖에서 야영을 하였으며 청년들은 한 이웃 가정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비슷한 일정을 가지고 다시 모였습니다.

오늘 나는 실제로 고요하고 작은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내가 받은 영적인 지시에 순종하겠다.

오늘 나는 부모님에게 편지를 써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 나는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겠다. 그를 인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오늘 나는 조상 가운데 한 분을 택하여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알아보겠다.

오늘 나는 구세주께서 바로 내 곁에서 계신 것처럼 행동하겠다.

오늘 나는 성구 하나를 암송하여 생활에 적용하겠다.

오늘 나는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하지 않겠다.

오늘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주는 일을 하겠다.

오늘 나는 선생님이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다는 것을 아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나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탐내거나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시기하지 않겠다.

오늘 나는 말이나 행동을 모두 정직하게 하겠다.

오늘 나는 내가 받은 축복을 헤아려 보고 종이에 하나 하나 적어보겠다.

오늘 나는 하루 종일 건전하고 적극적인 생각을 갖겠다.

오늘 나는 자신을 가치없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고 나에게 맞는 일을 하겠다.

오늘 나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나 감사의 말을 전하겠다.

그러나 다음 마지막 구절을 읽을 때는 다 읽어서 기쁜 듯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작별을 고하노니... 공중을 나

는 승리를 얻어, 산 자와 죽은 자의 영원한 재판관이신 여호와와의 즐거운 심판대에서 만날 때까지... 아멘.”(모로나이서 10:34) 그날 저녁 모임은 “아

멘” 소리와 함께 매우 엄숙하게 끝났습니다.

글을 보내 주세요!

저희 “독자를 위한 참고 사항”에서는 여러분의 봉사 활동, 대회 및 활동에 관한 내용을 신고자 합니다. 인용문, 제언 및 특별한 주제에 관한 간단한 간증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전 세계에 있는 말일성도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영감이나 기쁨을 주는 내용의 글을 저희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성명, 나이, 시나 군, 와드나 지부명 및 스테이크나 지방부 명칭도 적어 주십시오. 보내실 때는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성동 우체국 사서함 22호
성도의 벗 담당자 앞
133-600
감사합니다! □







덴마크의 바다와 농토와 사람들

덴마크의 회원들은 풍요와 방임의 땅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더욱 강하다.

질즈 에이처 플로렌스 2세

팔레와 이스터 블룬이 살고 있는 매우 오래된 농가는 문이 낮아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한다. 그들은 프리드리샤 교외에 있는 거의 허물어진 이 오두막 초가집을 복원하여 고풍스럽게 장식하였다. 어두운 색깔의 나무벽과 선반에는 미술 작품들이 걸려 있으며 여기에는 칼 블로흐가 그린 그리스도의 산상 수훈을 묘사한 유화 스케치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 그림은 코펜하겐 근처 힐리로드의 프리드리크스보흐 성에 전시중인 구세주의 생애에 관한 칼 블로흐의 일련의 그림들 가운데 하나이다.

팔리와 이스터의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 방식에서도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고 듣기 좋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덴마크의 말일성도들은 신중한 선택을 하고 있는데 그 선택이란 다름아닌 회복된 복음의 원리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아름다움을 보전함.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부터도 팔리와 이스터는 덴마크의 문화 유산을 매우 소중하게 여겨 왔다. 그들은 미술 작품과 공예품 및 자연 그대로 전래되어 오는 아름다운 것들 뿐만 아니라 복음도 보전하고 그 진수를 만끽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그들은 복음이 그러한 문화 유산을 더욱 고귀하게 만들어 준다고 믿고 있다.

이스터의 말에 의하면 팔리는 현재 덴마크의 주요 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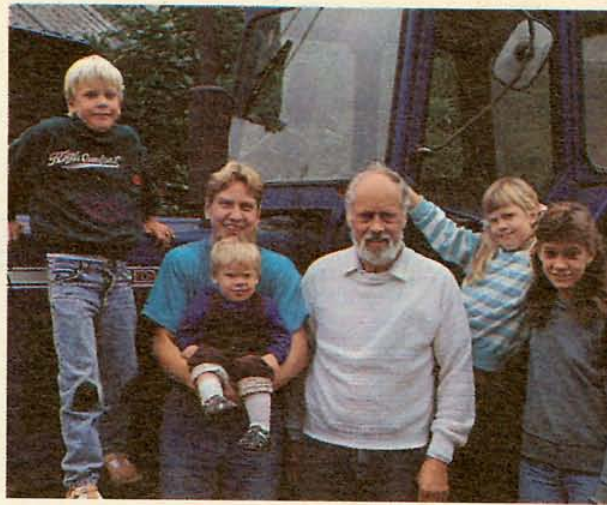
인 질랜드 전체에서 생존한 두 명의 공예가 가운데 한 명으로 아직도 옛 건축물의 기둥과 쇠시리와 도리 등에서 보이는 훌륭한 수공예 조각품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예술가이자 은퇴한 건축 청부업자인 팔리는 희귀조를 기르고 있다. 그의 작업장과 가까운 집 뒤뜰에 있는 커다란 우리에는 밝은 색의 새들이 가로대에 앉거나 새장 옆면에 매달려 노래를 부르고 있다. 앵무새의 일종으로 초록색 날개를 가진 킹 페리깃과 이와 유사한 종류로 화려한 색깔을 자랑하는 새들이 팔리와 같은 사람들 덕분에 아직도 멸종하지 않고 있다.

팔리와 이스터의 친구들은 빙그레 웃으며 이 두 사람을 “희귀조”라고 부른다. 이들이 자연에 대해 갖고 있는 기쁨은 매우 인도주의적인 방법으로 표현된다. 그들은 이십 여년 동안 주로 휠체어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장애인들을 데리고 매년 여름마다 숲으로 가서 야영을 시키고 있다.

팔리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데려가는 25명의 사람들의 연령은 서른에서 여든까지 천차 만별입니다. 우리는 숲속 깊은 곳에 있는 멋진 옛날 집에서 며칠 동안 함께 지내면서 숲을 거닐기도 하고 소풍을 가기도 하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합니다.” 또한 팔리와 이스터는 그들이 거주하는 군의 다발성 경화증 협회의 창립 회원이며 건강 위원회

이스터와 팔리가 덴마크 프리드리샤 근처 시골에 복원한 농가 뒷문 가에서 있다.



왼쪽 : 산상 수훈을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를 그린 칼 블로흐의 스케치 원작. 이 작품은 코펜하겐 근처 힐리로드의 프리드리히보흐 성에 상시 전시되어 있다. 가운데 : 자녀들(왼쪽부터) 인루네, 비오른, 카밀라, 카나와 함께 한 리베의 카렌과 오베 크리스텐센 부부. 오른쪽 : 고대풍과 현대풍을 모두 갖춘 풍차는 덴마크 풍경의 한 특징을 이룬다.
 옆쪽 : 오르후스 스테이크 부장단인 카르스텐 라르센 부장이 스테이크 대회 전에 딸인 마리아와 함께 시간을 갖고 있다.

의 자원 봉사자이기도 하다.

“저희는 함께 복음을 공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라고 이스터는 말한다. 그들이 교회에 가입한 것은 1954년에 선교사들의 방문을 받고 난 뒤부터였다. “팔리는 영원한 결혼에 감명을 받았으며 저는 구원의 계획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1956년에 잠시 복음 토론을 하였다. 그런데 팔리는 니파이의 글을 읽던 중에 영적인 자극을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팔리는 이스터에게 한 마디 말도 하지 않고 침례를 받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터는 그에게서 변화가 생긴 것을 직감하고 “당신 침례받았지요?”하고 물었다. 선교사 토론을 좀 더 한 뒤에 그녀도 침례를 받았다. 그 이후로 이스터는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두 차례 봉사하였으며, 팔리는 지부장과 지부부장으로 봉사하는 한편 프리드리샤의 초대 감독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그들이 침례를 받은 시기는 에라스투스 스노우 장로가 스칸디나비아 선교부를 개설한 뒤인 1850년 8월에 덴마크에서 첫 침례식이 있을 후 100년이 약간 지나서였다. 현재 덴마크에는 2개의 스테이크와 4100 여명의 회원들이 있다.

..토지를 경작함.

독일에서 프렌스보르 피오르드를 가로지르는 곳에 있는

스켄테르보르의 지부장인 크리스틴 쿤츠 형제도 목가적인 시골의 아름다운 경치 속에 있는 집을 가진 신중한 선택을 하는 또 한 명의 교회 회원이다. 선교사들이 쿤츠 형제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 그의 아내는 다시 방문해 주기를 청했다. 비록 교회에 가입은 하지 않았지만, “아내는 언제나 훌륭한 지지자로 남아 있습니다.”라고 쿤츠 형제는 말한다.

그들은 정원에 둘러싸인 넓은 석조 주택을 갖고 있는데 주위에는 동물들이 뛰어논다. 두꺼운 이중벽으로 지은 쿤츠 형제의 집에서는 아들 서렌과 딸 수산느가 성장해감에 따라 지부 회원들이 자주 모여 특별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 서렌은 현재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으며 수산느는 학생이다. “저희 집 서가에서 지부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가 앞으로 가져야 할 모임의 표준을 볼 수 있었어요.”라고 수산느는 말한다.

오브와 카렌 크리스텐슨 부부도 심사 숙고한 끝에 덴마크 서해안에 위치한 주요 항구 도시인 에스베르그에서 32km 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리베의 교외 농장으로 이주했다.

1984년부터 크리스텐슨 부부는 32헥타르 정도의 농지에서 보리와 밀과 완두콩과 딸기를 재배해 오고 있다. 또 식용으로 돼지와 소를 키우고 있으며 여가를 즐기기 위해 말도 키우고 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크리스텐슨 부부는 전





왼쪽 : 스테이크 앞에 서 있는 코펜하겐 스테이크 리카르트트 앤더슨 부장.
 가운데 : 오르후스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대회에서 어린이 합창단.
 오른쪽 : 배는 거의 500여개의 섬에 위치한 덴마크의 도시와 마을들을 쉽게 여행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이다.

형적인 덴마크인들이다. 덴마크 인구의 약 70퍼센트가 그들과 같이 매우 작은 규모의 농지를 가지고 농업에 전념하고 있다. “저희는 가족을 위해 농촌 생활을 하기로 했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추수의 율법을 배우는 등 좋은 것들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크리스텐슨 형제의 말이다.

크리스텐슨 부부는 생김새와 깨끗한 용모나 사람을 따듯이 맞아주는 태도에서 보다 전형적인 북유럽인임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식탁 쟁반 위에는 정성스럽게 자른 케익과 롤 카스테라와 빵과 치즈와 손수 집에서 만든 엘더베리 주스를 담은 깔끔한 컵이 놓여 있다.

덴마크인들은 유쾌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천여년 전에 북유럽을 통해 맹위를 떨치던 그들의 사나운 바이킹 조상들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덴마크인들은 손님을 맞으면 반드시 과자나 요리한 음식이나 식사까지도 대접한다. 덴마크 코펜하겐 선교부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은 “이곳 덴마크에서 저희는 매일 한 집에서 한 끼씩 식사를 합니다. 아침에 처음 방문한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마지막으로 방문한 집까지 계속되지요.”라고 즐겨 이야기한다.

오브는 에스베르그에 있는 병원에서 16년 동안 직원으로 일해 오고 있으며, 카렌은 6년 동안 간호원으로 일해 오고 있다. 그들은 큰 아이가 열 두 살이고 그 밑으로 두 살짜리까지 있는 네 자녀를 돌보기 위해 다른 교대소에서 일하고 있다. “남편은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아이들을 잘 돌봐 줘

니다. 남편은 정말 훌륭한 아빠예요.”라고 카렌은 말한다.

“1981년 교회에 가입하기 전부터 남편을 알았던 병원 사람들은 남편이 크게 발전한 것이 지금과 같은 남편의 생활 방식 때문이라고 한답니다.”라고 카렌은 덧붙인다. 카렌은 1년 동안 사촌과 함께 뉴욕에서 생활한 뒤, 1978년에 교회에 가입했다. 현재 그녀는 에스베르 와드의 초등학교 회장단의 일원이며 오브는 아론 신권반 교사이다. 카렌과 오브는 일년에 두 차례 스웨덴 스톡홀름 성전까지 차와 배로 긴 여행을 한다.

바다에 대한 관심..

배를 타기 위해서라면 스톡홀름에 있는 성전까지 갈 필요가 없다. 덴마크 왕국 자체가 유틀란드를 483개의 섬들이 둘러싼 군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유틀란드의 동쪽 해안에 있는 오르후스 스테이크에서 출발하여 군도에서 가장 큰 섬인 셸란섬 동쪽 해안에 있는 코펜하겐 스테이크까지 가려면 얼마간은 배로 건너야 한다.

연락선들이 한쪽으로는 손님을 태우고 다른 한쪽으로는 내리는 사람들을 위해 양쪽에 출입구가 있는 것을 보면 덴마크가 얼마나 풍요로운 곳인가를 알 수 있다. 그 배들은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빠르게 안락하다. 배안에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매점에서 책을 사 볼 수 있으며 잠이 오면

침대에서 잠을 잘 수도 있다. 배는 그러는 동안 마치 자동차를 타고 다리 위를 달리고 있는 것처럼 흔들림 없이 미끄러지듯 항해해 간다.

덴마크 사람들은 생활 자체가 물에 둘러싸여 물과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덴마크의 어디를 가도 바다에서 7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 없다. 영국과 독일쪽으로 나 있는 북해 항로를 따라 주요 농산물 판매 시장이 늘어서 있다. 덴마크는 무역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선박 산업이 가장 많은 인력을 흡수하고 있는데, 코펜하겐의 스테이크 부장인 리카르트트 앤더슨 형제도 자신의 계획을 바꾸어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심하지 않았다면 선박 회사에서 일하게 됐을 것이다.

앤더슨 부장은 이렇게 회고한다. “저는 덴마크 해군에서 복무했기 때문에 후에 항해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1970년 덴마크에서 선교 사업을 마친 후 헬미와 결혼하여 곧 아들을 낳았으며, 그후 모두 여섯 명의 아들을 낳았다. 에스베르에서 항해사 생활을 하는 것 대신에 그는 코펜하겐 제2와드의 감독으로 부름받았으며 경찰관이 되었다. 지난 9년 동안 그는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해 오고 있다.

“오늘날 덴마크에서 교회가 당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국민들이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라고 앤더슨 부장은 말하며 무겁게 한숨을 내쉰다. “한가지 덴마크의 국내 사정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점이라면 잘못된 것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도덕성이 강한 국민들이 이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것이 검은 색과 흰 색처럼 분명하게 식별됩니다.”

그는 덴마크가 한창 번성할 당시인 1960년대에 통과된 매우 자유로운 법률들을 꼬집는다. “저희 나라는 갑자기 부유해졌기 때문에 부를 통해 우리가 세련되고 이해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온 세계에 과시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음란물 제작과 해변에서 나체로 다니는 것을 허용하는 법률과 또한 요청만 하면 낙태를 할 수 있고 동성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률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위의 도덕적인 장벽이 모두 허물어져 버린 것이지요.”

그러한 사회적인 병폐에 시달리는 나라가 덴마크 뿐인 것은 아니지만, 덴마크는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 국제적인 눈

총의 대상이 되어 왔다. 긍정적인 면을 본다면 앤더슨 부장이 교회 회원들이 덴마크의 다른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그 어느때 보다도 더욱 열심히 부도덕성에 물들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저희 성도들은 성전 결혼을 통해 실제로 큰 축복을 누리 오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매우 강한 신앙을 갖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선교 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가족들은 강한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덴마크 국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필요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물결

지난 3년 동안 코펜하겐 스테이크의 침례자 수는 1988년에 27명에서 1990년에는 100명으로 3배나 증가했다. “앞서 가신 분들이 기울여 주신 힘에 의지하여 저희는 그분들이 놓으신 기초 위에 건물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앤더슨 부장은 말했다. 그는 선교 사업을 위해 돈을 벌고 있는 아들들과 함께 토요일에도 일을 하고 있다. 아들들과 함께 일해서 번 돈은 모두 선교사 기금으로 들어간다.

현재 24살인 아네테 마티센 엔센을 통해 선교사들이 얼마나 큰 힘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다. “선교사들만이 갖는 독특한 그 무엇에 끌려 저도 선교 사업을 하고 싶다는 소망을 가졌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래서 마음을 굳혔을 때 ‘주님은 선교사가 되겠다는 너의 결심에 기뻐하신단다.’하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아네테는 1988년부터 1990년까지 덴마크에서 복음 선교사로 봉사했다. 그녀는 최근에 오덴세 제1와드 회원인 올레 엔센과 결혼하였으며 계속하여 수화에 관한 공부를 하려는 소망을 갖고 있다.

한스 크리스틴 안데르센이라는 유명한 동화 작가의 출생지로 잘 알려져 있는 섬인 오덴세에서는 트리네와 스텐 크리베르그가 각기 세 살과 두 살일 때 선교사들이 그들의 집을 찾아왔다. 그들의 부모인 핀과 잉에는 침례를 받았으며, 얼마 후에 성전에서 가족 인봉을 받았다. 스텐은 오래 곤에서 선교 사업을 한 후 성전에서 결혼했으며 트리네도 성전에서 결혼했다. 트리네의 남편은 텍사스의 산 안토니오에서 봉사한 귀환 선교사로 오덴세에서 은행가로 일하고 있다. 그리고 스텐의 아내인 로네는 오르후스 스테이크의



왼쪽 : 에스베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마리에 헬레네와 아들 알란과 함께 한 클래식 기타 연주자인 안 페데르센. 오른쪽 : 발리룸에 있는 집에 마련된 녹음실에서 팔리와 할부르그 하팅 부부는 교회 안팎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음악과 사운드트랙을 제작한다. 왼쪽 : 1966년부터 코펜하겐 스테이크의 물론 댄싱 그룹은 세계 각지를 다니며 민속 무용을 공연해 오고 있다.

축복사인 베르네르 부르 축복사의 손녀이다.

크리베르그 가족 중 제2세대 교회 회원들은 성전 결혼을 통해 세상의 부도덕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앤더슨 부장의 주장을 잘 대변해 주는 사람들이다. 잉에 크리베르그 자매는 세번째 자녀인 카롤리네를 보면 이를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말한다.

“만일 저희가 교회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면 카롤리네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라고 크리베르그 자매는 말한다. 대부분의 덴마크 여성들처럼 잉에도 아이를 더 이상 낳지 않으려고 생각했었다. “두 아이와 일만 있으면 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신학 연구원 대학부 공과로 자녀를 출생하는 데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이란 내용을 가르칠 준비를 하는 중에 멈춰섰습니다. 제 자신이 공과에서 가르치는 대로 생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크리베르그 자매는 그 내용이 진리임을 믿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의무에 대해 공부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자녀를 더 갖는 것이 옳다고 결심했다. 이것은 덴마크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었다. 현재 핀과 잉에와 11살인 카롤리네는 핀이 소년 시절에 자주 가서 놀던, 이제는 폐쇄된 기차 역사를 개조하여 만든, 납으로 봉해진 창문이 많이 달린 튼튼한 집에서 살고 있다.

..성전에서.. 힘을 얻음..

영생에 대한 이해와 결혼 성약을 통해 크누드와 보딜 크리스텐센의 결혼 생활은 흔들림이 없다. 크누드는 전자 제품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딜은 교사로 일하고 있다. 지금은 헤르닝 지부의 상호부조회 회장인 보딜은 건강 문제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우리에게는 올라야 할 산이 많이 있지만 언제나 서로에게서 힘을 구할 수 있어요.”라고 보딜은 말한다. 이 조심스러운 말 속에는 출산시에 겪었던 고통과 크누드의 암과의 투병 생활과 화학 요법을 통한 치료와 회복, 딸이 어려서 앓은 수막염, 이러한 시련이 크리스텐센 가정에 닥쳐옴으로써 갖게 된 신앙과 감사함 등이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우리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을 얻기 위해 성전을 방문하는 것을 통해 영적인 힘을 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크누드 형제의 말이다. 그는 조용하면서도 내적인 힘을 갖고 있으며, 그들 부부는 함께 멩에를 메고 살아가고 있다.

덴마크가 정화와 오염이라는 상반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바다에 거의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덴마크인들도 유혹의 바다에 둘러싸여 있다. 번영은 여가와 풍요와 전례없이 많은 선택의 기회를 가져 왔다.





왼쪽 : 알보르의 집에서 헤니 클릿가르드와 남편 프레벤이 스퀘어 댄스 강습을 하고 있다. 가운데 : 네 자녀중 막내와 함께 헤닝 지부의 크누드와 보달 크리스텐슨 부부. 오른쪽 : 오덴세의 집에서 세익스피어 작품 연극 배우인 앳디 카르달과 아내인 이다.

신문 및 잡지 판매대와 야간接客 업소와 텔레비전에서 매우 공공연하게 부도덕적인 것들을 보여 주고 있어서 민감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문자 그대로 바다를 정복했던 옛 선조들의 기지와 결의를 물려받은 덴마크인들을 표류하게 하고 있는 그 부도덕의 바다를 이겨낼 수만 있다면 그들의 번영과 발전은 교훈과 축복이 될 것이다.

덴마크는 오랫동안 건축과 가구 및 예술 분야에서 특유의 단순미와 기능의 산실로 각광받아 왔다. 그러나 지금은 음란물과 방임의 노도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로 인해 그 고귀한 유산이 파괴되고 있으며 그 잔잔한 바다가 쓸데없이 오염되고 있다.

..외로운 결심을 함..

아알보르그의 에테 슈미츠가 교회에 가입할 때 느꼈던 것처럼 외로운 선택은 외로운 선택일 수도 있다. 에테는 개종후 9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저는 지금 교회에 다니지 않을 때보다 더 강건해졌어요. 교회에 들어옴으로써 제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안 셈이죠. 전 그게 너무나 즐거워서 사람들과 얘기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인구의 3퍼센트 정도가 교회에 다니는 덴마크에서는 예

테가 전형적인 덴마크인이 아니라고 말해도 무방한 것 같다. 왜냐하면 덴마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매우 조용한 성격을 가졌다면 그녀는 특이하게 외향적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오르후스 스테이크의 청소년들이 연극을 할 때 그 사실을 지역의 텔레비전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알리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리만큼 매우 자연스럽게 와드 공보 책임자 부름에 적응해 나가고 있다.

“대부분의 덴마크 청소년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데 이 청소년들만큼은 그러한 시간을 모두 바쳐 연극 연습을 하고 또 공연하는 것을 보고 정말 훌륭하기 그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남들에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텔레비전 방송국 측에서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 자신의 부름에 대한 그녀의 노력 덕분에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덴마크에 있는 교회에 관해 시청자들에게 알리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에테는 4명이 한 쌍이 되어 추는 스퀘어 댄스를 좋아하는 덴마크 교회 회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물론 이 춤이 덴마크 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덴마크 사람들은 1952년부터 전통적인 이 미국의 스퀘어 댄스를 다양한 덴마크 민속 무용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아알보르그의 교회 회원인 프레벤 클릿고르드 형제는 1982년에 스퀘어 댄스에 관한 책을 썼다. 그때부터 클릿고

르드 형제와 그의 아내인 헤니는 스쿼어 댄스를 가르치고 공연을 갖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들에게는 그 춤이 선교 사업의 도구가 되었으며, 그들의 집에 마련된 무용실은 일 주일에 나흘 밤 동안 발을 구르고 손뼉치고 환호성을 지르는 소리들로 가득 찼다.

자녀인 수산느와 엘리사벳과 이미도 여기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제 이 춤은 가족들의 취미 이상의 것이 되었다. “스쿼어 댄스에 대한 흥미가 매우 컸기 때문에 남편과 저는 야간 학교에서 이 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세를 얻은 방에 사람들이 점점 늘어 결국 저희는 저희 집 한 칸에 이 부속 건물을 지어 늘어난 사람들을 수용하였습니다.”라고 클릿고르드 자매는 말한다.

종종 스쿼어 댄스를 하는 날 저녁에 사람들이 모여 클릿고르드 부부에게 그들의 생활 방식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클릿고르드 자매는 설명한다. “저희는 이때 자연스럽게 저희의 간증을 전합니다. 저희의 생활에 목표를 준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이죠. 이 스쿼어 댄스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덴마크에서 스쿼어 댄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성인들 뿐만이 아니다. 코펜하겐 스테이크에는 1966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청소년 대회와 함께 시작된 25년 전통을 자랑하는 물론 단세르네라고 불리는 청소년 댄싱 그룹이 있다. 미국풍의 페티코트와 줄무늬 무명옷으로 차려 입고 높이 발을 구르고 손뼉을 치는 이 열광적인 청소년 댄싱 그룹도 전통적인 스쿼어 댄스의 열기를 더한다. 코펜하겐 제4와드의 마리운 알스의 경험에 의한 지시하에 그들은 코펜하겐의 위락 공원인 티볼리 가르덴스에서부터 독일, 스웨덴 등지로 여행하며 무대나 축제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나막신을 신고 추는 민속 춤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기량을 유감 없이 발휘하였다.

덴마크에서는 교회의 성장에 발맞춰 대중적인 시각으로 자신의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파에로에 섬의 팔레 헤이티그의 사진이 우편국에 의해 기념집으로 출간되었다. 오덴세 제1와드의 안 비르크는 가족 문제를 다루는 정규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와 그의 아내인 케이롤은 열 명의 자녀를 둔 부모로서 덴마

크 대중 매체에 잘 알려진 가정 옹호론자들이 되었다. “고귀한 복음을 통해 저희는 기꺼이 다른 가족들을 도와야 한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라고 비르크 형제는 말한다.

오덴세의 옛디 카르닐 형제는 덴마크에서 리슈르드 3세(영국의 왕: 1452~1485)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셰익스피어 작품 공연은 덴마크 최고의 걸작으로 찬사를 받고 있으며 찰스 디킨즈 소설인 스쿠르지에 관한 연극은 오덴세 극장에서 매년 열리는 고전이 되었다. 그와 그의 아내이다 사이에는 일곱 자녀가 있다.

클래식 기타 연주가인 안 페테르센도 연주를 통해 대중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는 또 한 사람의 교회 회원이다. 그는 런던에서 선교 사업을 했으며, 아내인 마리에 헬리네는 브뤼셀에서 봉사했다. 음악 학교에서 7년 동안 수학한 뒤에 안은 정기 연주회를 갖기도 하고 음악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는 한편 사설 강습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이 모든 덴마크의 회원들은 덴마크에서 눈에 띄게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곳은 특별한 땅입니다.”라고 리카르트트 앤더슨 부장은 말했다. “덴마크에는 보존할 만한 것들이 무척 많고, 또 해야 할 좋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덴마크의 말일성도들은 선을 위해 싸우는 전사들이 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성도들은 간소한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 경작하면서 생활해 나가는 힘, 환경의 정화 및 쇄신, 풍부한 문화 예술 유산 등 덴마크를 대표하는 가장 우수한 것들에 대한 존중심을 나타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유명한 코펜하겐 왕궁의 자기에서 보이는 스카프와 앞치마를 두른 짙짜는 소녀, 어린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독서하는 어머니, 보네트(턱 밑에서 끈을 매게 돼 있는 챙없는 여자·어린이용 모자)를 쓰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여름용 드레스를 입은 소녀 등의 훌륭한 그림에서 묘사된 것처럼 순수성과 단순성은 덴마크에서는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순진 무구의 이미지는 일상 생활에서 복음대로 생활하며 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 덴마크 말일성도들이 얼마나 신중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

감사의 노래

리사 레이 터너

나는 세 살짜리 아들 곁에 무릎 꿇고 앉아 그 아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드리는 앞뒤가 맞지도 않는 기도를 듣고 있었다. “아빠와 엄마와 눈과 구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타클로스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피자와 형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음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들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나는 가만히 기다렸다. 축복해 달라는 항목을 길게 늘어는 후에 기도를 계속할지 아니면 따뜻하고 매혹적인 침대로 뛰어 오를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아들은 한참 있다가 머뭇거리며 “음, 그리고 멧덩구리 우리 늙은 고양이들 축복해 주세요.”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말하며 기도를 마쳤다.

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 주님께 마지막으로 감사드렸던 때를 기억해 보려고 했다. 분명 내 인생은 그런 작은 축복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아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피자가 맛있다고 생각했지만 한번도 그것에 대해 감사드린 적이 없었다. 나도 역시 눈과 구름을 즐겼지만 그것에 대해 언급해 본 적이 없었다.

아들은 기도 속에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포함시켰던가! 내 기도가 그렇게 순수하고 일상 생활의 단순한 상황에 대해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성인으로서 중요한 감사와 간구를 드리는 데 그런 하찮은 것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너무 무의미하기 때문에 생략한다고 생각하고 싶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가 실생활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뒷뜰에 피어 있는 작은 보라색 꽃이나 교묘하게 얽힌 나뭇잎이나 시원한 비가 대지를 씻어내리는 냄새 같은 것에 더 이상 관

심을 갖지 못할 만큼 “해야 할” 일과 책임들로 분주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즐거움들을 깨닫기조차 못했는데 어떻게 그것들에 대해 감사할 수 있었겠는가?

나와는 달리 우리 아이들은 자기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소한 일들을 다 알아차렸다. 우리 아이들의 주의 깊은 눈길과 감사하는 마음을 피해 갈 것은 없었다. 다섯 살짜리 아들은 칼로리를 소모시킨다거나 마음속으로 정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건강한 육신이 움직이는 순수한 기쁨을 맛보기 위해 달렸으며, 세 살짜리 아들은 음악만 나오면 언제든지 맹렬하게 춤을 추고 따뜻하고 질퍽한 진흙의 감촉을 느끼기 위해 맨발로 진흙 속을 철벽거리고 다녔다. 우리 막내 아들은 기쁨에 대한 가장 완전한 본보기다. 그 애는 비누 거품도 맛보고 머리카락에 사과 소스도 칠해 보았으며 까맣게 반짝거리는 딱정벌레도 쫓아다녔는데 어느 정도 자라면 곤충을 싫어하게 되고 청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텐데도 그같은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다.

분명 나도 예전에는 우리 아이들과 같았지만 이력저력 그러한 자발적인 행동과 호기심을 잃고 말았다. 어른이 되었다는 현실과 바쁜 생활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 누리는 기쁨을 잃은 것이다. 이처럼 나는 단순하고 평범한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잃고 말았다.

물론 나는 “큰 축복”에 대해 감사드린다. 내 육신이 건강하고 가족을 주셨으며, 또한 복음을 주신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린다. 이러한 선물들을 간과할 수는 없다. 병원에 가보거나 잠시나마 병에 걸려 보면 건강이 마지 못해 웅얼거리듯 짤막하게 기도 속에 포함시키는 항목이 아니라 참으로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느끼게



된다. 휴일에 만찬을 즐기거나 아이들로부터 받은 크레용으로 쓴 사랑의 편지를 읽거나 또는 가족과 따뜻한 포옹을 하는 일 등을 통해 나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가정 생활에 대해 감사드린다. 이밖에 기도에 대한 응답이나 영감을 주는 성찬식도 복음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또한 우리는 위협에 처해 있을 때에도 쉽게 감사드릴 수 있다. 엘리 위젤은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어둠의 왕국에서 벗어난 사람보다 더 감사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나도 이 말에 공감한다.

나는 비록 엘리 위젤처럼 유대인 대학살의 잔혹함을 몸소 겪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넘긴 후부터는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더 커졌다. 잇단 유산으로 불안해 하던 끝에 첫 아들을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낳았을 때에는 나도 모르게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했다.

둘째 아들이 위중한 병에서 회복되었을 때도 내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 흘렀다. 세번째 임신때 나는 합병증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다. 그때 나는 마음속으로 감사의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일상 생활에 대해 감사드리는 것은 어떤가? 그것도 역시 복음의 일부가 아닌가? 물론 복음을 중심으로 한 생활은 믿음과 예배와 의무와 사랑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감사드리는 것도 역시 포함돼야 한다.

어린 아이들이 드리는 감사에 대해 생각하면서 나는 그리스도께서 어린 아이처럼 되라고 명하신 말씀을 떠올렸다. 어린 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아마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또 감사드리는 능력을 더욱 키운다는 의미도 될 것이다. 나는 너무 “바쁘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크든 작든 내

가 받는 축복이나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사람들을 인식하지 못할 만큼 바쁘게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어릴 때 피아노 연습을 하던 것처럼 매일 성실하게 꾸준히 감사드리는 연습을 하겠다고 단단히 결심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세속적인 감각이나 거창하고 눈에 띄는 면에서가 아니라 작고 일상적인 면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나는 전혀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다.

나는 저녁 때 해가 지는 장면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물론 해는 늘 뜨고 지는 일을 반복해 왔다. 나는 가족들을 불러내서 하늘이 그 독특한 보랏빛과 분홍빛으로 물든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또 우리 막내 아들의 얼굴에서도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했다. 으깬 완두콩과 말라붙은 닭고기 국물이 얼굴에 덕지덕지 붙어 있을 때조차도 아들의 얼굴이 아름답게 보였다. 밤에 남편이 아이들에게 이불을 덮어 주며 상냥하게 침대에 누이는 것을 지켜 보면서 전에 남편을 얼마나 사랑했었는지를 생각했다. 나는 또 아들과 함께 모래를 가지고 놀이를 하면서 하얀 모래 알갱이의 감촉을 음미하기도 했다. 나는 “어둠의 왕국”을 겪지 않고도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늘 감사란 것이 사랑이나 분노처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어린아이처럼 뒹으로써 소망이나 신앙처럼 습득할 수 있는(또는 재학습할 수 있는) 덕성에 더 가까웠다.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는 것은 연습을 통해 습득할 수 있으며 쇼팽의 피아노 연습곡에 있는 어려운 소절처럼 꾸준한 연습을 통해 쉬워지게 된다.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는 방법을 완전히 습득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인생의 고통과 오점을 무시해 버리는 불성실한 태도나 자기 본위로 자신을 과장하는 태도도 아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느낀다고 해서 슬픔과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것들을 더 쉽게 견딜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며 복잡하게 얽힌 삶의 날카로운 언저리를 매끄럽게 다듬어 줄 수도 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많은 일들과 의무로 바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 감사드리거나 또는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받은 복을 세어 보는 것이 늘 쉽지는 않다. 특히 오늘날에는 받은 복을 세어 보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가 받지 못한 것 즉 새 차를 사고 낭만적인 휴가를 즐기며 무한히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 위한 돈에 초점을 맞추라고 유혹한다.

세상이 이러한 자기 탐닉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고 가르친다. 구세주께서는 누가복음 17장 11~19절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다. 그때 예수님은 열 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셨지만 그 중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드리자, 예수님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17절)라고 물으셨다.

나도 종종 같은 의문을 갖는다. 그때까지 살아오던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 건강하고 완전한 몸이 되어 자신들이 쫓겨난 그 사회로 다시 돌아가게 된 그 아홉 사람은 어디 있을까? 어떻게 그 지긋지긋한 역병을 기적적으로 고쳐 주었는데도 “감사합니다.”라는 간단한 말을 하지 못했을까? 것처럼

커다란 기적을 깨닫지 못했을까? 그들의 부모들이 그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경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은 그후 이 천 년 뒤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과 같은 어려움으로 고통받았을 것이다. 아마 그들의 삶도 사소하고 하찮은 일들로 가득 차 완전히 잊어버렸던 본래의 생활로 깊이 빠져 들어갔을 것이다. 아마 그들은 문둥병자 시절에 겪었던 일들을 모두 잊고 싶어하면서 가족과 사회에 속하려고 조바심이 났을 것이다. 누가복음에는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한 사람만 돌아왔다는 것을 안다.

그 한 사람은 진실로 축복받았으며 그것은 그 역병에서 나온 것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는 감사의 영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축복받았던 것이다. 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드리기 위해 돌아올 수 있었다. 많은 어린 아이들이 그 문둥병자와 같다. 그 아이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돌아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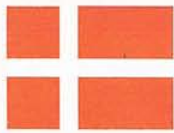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부모와 형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것만큼이나 피자에 대해서도 감사드리는 것을 들은 후 나는 고침을 받은 그 문둥병자와 더욱 닮아갔으며 우리 세 아들을 더욱 닮아가기 시작했다. 나는 따뜻한 담요와 하얀 멍게 구름과 흰 튜울립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 또 지저분하고 활기찬 세 아들과 그 아이들이 컷병없이 겨울을 보낸 것과 훌륭한 남편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다.

나는 드디어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파함, 윈프레드 알 게이슬러 작품

1885년 선교사들은 물문경과 브리감 영이 보내는 우정의 편지를 가지고 윈드 리버(아이오밍)에 살고 있는 쇼숀 인디언들을 찾아갔다. 당시 인디언 추장이던 와사키는 그 선물을 받고 부족장들에게 "구를 위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브리감 영에게 선교사들을 보내도록 명하셨다고 말했다. 이것이 와사키족과 말밀성도간에 맺어진 오랜 우정의 시작이었다.



오르후스 스테이크(위)와 코펜하겐 스테이크(아래)의 청소년들은 덴마크에서 선을 위해 싸우는 힘이 되고 있는 교회 회원들이다. "덴마크의 바다와 농토와 사람들" 참조 (사진 촬영 : 질즈 에이치 플로렌스 2세)